

구간별 피어

2024

보고서

군산북페이 2024

보고서

주최·주관

소통협력센터 군산·군산시(도시재생과, 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안전부

소통협력센터 군산

소통협력센터는 다양한 분야 간 참여와 협력 거점을 통해 지역사회의 창조 역량을 강화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소통협력센터 군산(이하 센터)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정책의 일환으로 군산시가 2022년 5월 유치, 같은 해 12월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커넥트군산 컨소시엄 운영주체 선정을 통해 출범했다.

센터의 공간적 기반인 군산회관(GCC, Gunsan Creative Center)은 한국 모더니즘 건축의 대가 김종업의 유작이자 10년 동안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었던 군산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재개관한 곳이다. 센터는 창작·매개·동시대라는 고유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군산의 역사, 자연, 문화를 새롭게 들여다보고 쌓아가는 다양한 로컬 브랜딩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센터는 창작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 양쪽에 '로컬 브랜딩 렌즈'를 적용하는 앵커시설로 기능하고, 전라권 로컬 브랜딩의 광역거점으로써 군산 내 자원 문화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군산 안팎을 연결하고, 지역을 넘어서는 매개자들을 양성하며, 고유 자원들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과거의 군산을 넘어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군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군산시 시립도서관관리과(군산시립도서관)

일제 강점기인 1912년 개관한 군산부립도서관을 모태로 한다. 본관인 군산시립도서관과 분관인 금강도서관, 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산들도서관, 그리고 군산 전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군산시립도서관은 1976년 군산시립도서관으로, 2009년 군산시 수송동 이전 시 군산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전통적인 수서와 대출 서비스 외에도 강연, 축제, 독서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발·운영하며 독서 생태계 강화와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기획·운영

군산책문화발전소

군산의 동네서점 열세 곳의 연합체이며, 회원서점은 다음과 같다. 그래픽숍, 그림산책, 리루서점, 마리서사, 봄날의 산책, 시간여행자의 책방, 심리서점 쓰담, 양우당, 예스트, 조용한홍분색, 종이골짜기, 군산어린이서점 책봄, 한길문고.

숫자로 보는



군산북페어

들어가며

I. 군산북페어 2024 – 사업 소개

1. 개요	8
2. 추진 방식 및 내용	8
3. 조직도	9

II. 군산북페어 2024 – 사전 준비 2023.6. - 2024.2.

1. 군산 서점과의 만남	10
2. 군산 내 ‘책 문화’ 네트워크 조성	12
3. 시립도서관관리과와의 협업	13

III. 군산북페어 2024 – 실행 과정 2024.3.-2024.9.

1. 준비 기간 및 조직 구성	14
2. 기획·운영사 선정 및 방향성 설정	16
3. 주요 행사: 북마켓	17
참가사 모집 및 선발	17
해외 초청	18
부스 구성 및 규모	20
판매 촉진: 쿠폰 및 리워드	22
참가사 지원	24
네트워킹	24
4. 주요 행사: 프로그램	25
전시	25
주제 토크 및 대담	27
이벤트	27
5. 그래픽 디자인	28
6. 출간물 – 종합 안내 리플렛	30
7. 웹사이트	31
8. 홍보	32
온라인 홍보	32
오프라인 홍보	34
매체 홍보	35
9. 협찬 및 후원	36
10. 공간 운영 및 현장 진행	37
공간	37
주차	39
접근성	39
운영 인력	40
안전 관리	40
F&B	41

IV. 군산북페어 2024 – 현장

42

V. 군산북페어 2024 – 그 후

1. 만족도 조사	62
2. 후기	70
3. 만든 이들의 회고	70

연표

71

들어가며

소통협력센터 군산은 2024년 여름, 군산시 시립도서관관리과(군산시립도서관), 군산책문화발전소와 함께 ‘군산북페어 2024’를 개최했다. 행사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 동안 군산회관(구 군산시민문화회관)에서 열렸다. 5개의 해외(일본, 대만) 참가 부스를 포함 100개의 부스가 참가한 북마켓과 전시, 토크 및 대담, 이벤트로 구성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6,600여 명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창작·매개·동시대라는 키워드 아래 군산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이를 기반으로 군산의 현대적 매력을 알리는 소통협력센터 군산의 로컬 브랜딩 관점, 시민 독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군산시 시립도서관관리과의 수요, 그리고 한국 북페어 생태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책문화발전소의 의지가 결집하여 ‘군산북페어 2024’가 탄생하였다.

이 보고서는 소통협력센터 군산이 기록하고 정리한 ‘군산북페어 2024’의 준비, 실행, 현장, 평가 자료이다. 먼저 로컬 브랜딩과 로컬 크리에이터,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 관점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북페어를 준비했는지 사전 과정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했던 다양한 과업과 성과물을 한데 모았다. 마지막으로, 후기를 중심으로 올해 행사에서 발견한 고유한 가치를 되짚어보고, 미래의 군산북페어가 지켜나가길 바라는 가치와 발전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가 책과 독서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의 매력을 전파하여 지역 내 문화적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행정 기관과 담당자, 중간지원조직, 기획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타지역에서 북페어를 비롯한 책 문화 행사를 기획하려는 독자라면 이 책을 일종의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군산북페어 사업을 이어갈 주체가 꾸준히 열람할 수 있는 기록물로 이용되었으면 한다. 올해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군산북페어가 군산은 물론 전국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행사로 지속되는 데에 이 보고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4년 11월
소통협력센터 군산

I. 군산북페어 2024 - 사업 소개

1. 개요

행사명

군산북페어 2024(영문명: GSBF 2024)

행사기간

2024.8.31.(토) - 9.1.(일), 2일간

장소

군산회관(전북 군산시 대학로 308,
구 군산시민문화회관)

주최·주관

소통협력센터 군산
군산시(도시재생과, 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안전부

기획·운영

군산책문화발전소(대표: 김광철)

현장 운영

우만컴퍼니(대표: 김나은)

주요 내용

북마켓(지역 서점 및 출판사 100여 개소),
프로그램(전시, 주제토크, 대담, 강연, 낭독회, 워크숍),
현장 이벤트

관람객 집계

6,600여 명(1일차 3,600여 명, 2일차 3,000여 명)
*매표 방법: 무료 입장(입장스티커 배부)

2. 추진 방식 및 내용

추진 방식

부서 간 협업 및 로컬 크리에이터(지역공동체) 지원
협업 - 군산시 도시재생과(민간위탁: 소통협력센터 군산), 시립도서관관리과(군산시립도서관)
지원 - 군산책문화발전소

주체별 추진 내용

군산시 도시재생과(소통협력센터 군산)
방식 -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으로 추진
*민간위탁사업(센터명: 소통협력센터 군산)
내용 - 총괄 계획, 예산, 기획, 홍보, 장소 제공 등

시립도서관관리과(군산시립도서관)

방식 - 시립도서관관리과 자체 사업 발굴 및 추진
내용 - 예산, 운영, 홍보, 자체 행사 추진 등

군산책문화발전소

운영위원회 조직을 통한 행사 기획, 운영,
홍보 지원 등

3. 조직도



II. 군산북페어 2024 - 사전 준비 2023.6. - 2024.2.

1. 군산 서점과의 만남

2023년, 소통협력센터 군산(이하 센터)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이들이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살롱' 사업을 위한 사전 조사로 활발한 현지 조사와 미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군산의 여러 서점이 군산 고유의 책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구도심부터 주거 지역, 교외 지역에 이르기까지 군산 곳곳에 위치한 서점들은 독서 클럽과 북토크, 클래스, 강연 등을 기획, 운영하며 해당 동네를 중심으로 책 문화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입주 작가 제도나 작가 학교 등의 시스템을 마련하여 군산 기반 작가의 발굴과 활동을 지원하는 곳도 있었다. 2023년에 신설된 군산초단편문학상 역시 군산 서점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하여 진행하는 공모전이였다.

대다수의 군산 서점은 책을 중심으로 군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영향력 있는 문화적 자원을 만들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한 바람 중 하나는 '군산에도 북페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이미 생성한 문화적 자원을 발굴, 브랜딩하여 확산시키고, 리모델링을 마친 군산시민문화회관을 군산의 문화 거점 시설로 활용한다는 센터의 사업 취지와도 결이 맞는 구상이었다. 2023년 하반기, 센터는 2024년도 로컬 크리에이터 살롱의 주요 사업으로 북페어 개최를 결정했다.

본격적인 북페어 기획에 앞서, 센터와 군산 서점들은 북페어와 책 문화를 토크와 강연을 통해 공부하고, 흥미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책들을 함께 살펴보는 전시 겸 워크숍 프로그램 <열람실 회의실>을 기획하여 2023년 10월에 개최했다. '군산, 책, 문화'를 키워드 삼아 출판 및 북페어 분야의 여러 전문가를 군산에 초청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군산 책 문화와 향후 북페어의 비전을 상상하고 고민해 보는 자리로 삼았다.



열람실 회의실 - 군산, 책, 문화
군산의 책 문화 공유와 발전을 위한 전시, 토크 기반 도서 워크숍

[열람실] 전시
일시: 2023년 10월 16일 - 10월 31일
11:00 - 19:00
장소: 그래픽숍(군산시 구영4길 16-2)
주제: '군산, 책, 문화'라는 키워드를 화두로 군산 책문화의 비전을 상상하고 고민해 본다.
전시품: 출판, 서점, 지역문화, 북페어, 독립출판, 아트북에 관한 국내외 도서 300여 권

**[회의실] 토크와 대화:
Talk & Conversation(6회)**

- 1회차** 일시: 2023년 10월 19일(목)
18:00 - 19:30
주제: 출판으로 함께하기의 방법들 - 아시아 북페어 현장에서
연사: 더북소사이어티 임경용 대표
- 2회차** 일시: 2023년 10월 20일(금)
18:00 - 19:30
주제: 군산 독립만화출판사 운영기
연사: 빼약빼약박스 전정미 대표
- 3회차** 일시: 2023년 10월 21일(토)
18:00 - 19:30
주제: 10년의 출판, 23권의 책, 25회의 북페어, 그 사이 어딘가
연사: 사월의눈 정재완 대표, 전가경 대표

- 4회차** 일시: 2023년 10월 22일(일)
18:00 - 19:30
주제: 전주책래, 기획과 운영 성과에 관하여
연사: 전주책래 총괄기획자·물결서사 임주아 대표
- 5회차** 일시: 2023년 10월 26일(목)
18:00 - 19:30
주제: 해외의 동네서점들
연사: 마리서사 임현주 대표
- 6회차** 일시: 2023년 10월 27일(금)
18:00 - 19:30
주제: 출판 실천과 서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단상들
연사: 워크룸프레스 박활성 대표, 땀스북스 이기섭 대표



또한, 사전 준비 차원으로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군산북페어 관계자들은 따로 또 같이 기존 여러 북페어(언리미티드 에디션, 서울국제도서전, 제주북페어, 전주책래) 및 책 문화 관련 선진지(서울 아트책보고 외 다수)를 답사했다.

2. 군산 내 '책 문화' 네트워크 조성

북페어 사전 준비 과정에서 군산 기반의 북클럽이나 글쓰기 모임 등 군산의 책 문화를 만드는 로컬 크리에이터들과의 접점도 늘어났다. 일례로 2024년 회관이 위치한 나운동을 기반으로 수행했던 센터의 주민공모 사업에 시니어 자서전 쓰기, 책 읽기 모임 네트워크, 서점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 생태단이 참여하여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성되었다. 군산 책 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은 북페어를 준비하는 서점지기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고, 언론에 기대평을 기고하고, 단체 방문을 추진하는 등 북페어 소식이 군산 구석구석 알려지는 데 손을 보태 주었다.



한길문고의 '어린이 생태단' 단체사진



나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북클럽 네트워크 '이야기그릇 담'

3. 시립도서관관리과의 협업

군산시 시립도서관관리과는 전국적인 북페어 열풍에 주목해왔다. 특히 인접 도시인 전주에서 2023년에 출범한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래'의 흥행의 영향은 컸다. 전주 기반의 서점지기와 전주시 도서관 부서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개최한 '전주책래'처럼, 도서관 역시 군산 고유의 북페어 개최를 갈망하며, 군산 서점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상상하고 있었다.

2024년 시정 발표를 통해 시립도서관관리과의 북페어 개최 계획을 접한 후, 센터는 적극적으로 도서관과의 군산북페어 공동 개최를 의논했다.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군산북페어 2024'의 개최 장소를 군산회관으로 결정하고, 센터는 북마켓과 전시를, 도서관은 토크 및 대담을 중점적으로 맡아 예산을 집행하고 준비하는 협력안을 도출했다.



'군산익스프레스'가 한길문고에서 진행한 시니어 자서전 쓰기 사업

III. 군산북페어 2024 - 실행 과정 2024.3. - 2024.9

1. 준비 기간 및 조직 구성

2024년 3월 말, 기획·운영사 선정 준비, 메인 그래픽 디자인, 웹사이트 개발 등을 시작으로 '군산북페어 2024' 개최를 위한 5개월 간의 실무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행사 규모에 비해 준비 기간이 매우 짧았던 탓에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여러 주체가 힘을 합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군산북페어 2024'는 소통협력센터 군산과 군산시 시립도서관관리과가 공동으로 주최·주관을 맡고, 군산 서점 열세 곳의 연합체인 군산책문화발전소가 기획·운영을, 군산 기반의 문화예술 프로젝트 기획사인 우만컴퍼니가 현장 운영을 맡았다. 본 행사의 네 주체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분과에 해당하는 상세 과업의 실무를 분담했다.

분과 및 상세 과업 분담

1. 예산·회계

군산책문화발전소, 소통협력센터 군산,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 수립, 조정 및 집행

2. 현장 운영

군산책문화발전소, 우만컴퍼니, 소통협력센터 군산
-기자재 구입 및 설치
-인력 운영

3. 홍보

군산책문화발전소, 우만컴퍼니, 소통협력센터 군산, 시립도서관관리과
-온라인: SNS
-온라인: 홈페이지
-오프라인: 거리현수막, 포스터, 홍보물 등
-보도자료 작성 및 군산시 커뮤니케이션

4. 초청

군산책문화발전소, 소통협력센터 군산
-국내 초청
-해외 초청

5. 협찬·후원·쿠폰

군산책문화발전소
-협찬, 후원, 자원봉사 등 관련 행정
-협찬, 후원사 물색 및 컨택
-쿠폰 발행 및 관리

6. 전시

군산책문화발전소, 소통협력센터 군산, 시립도서관관리과
-전시 기획, 설치 및 운영 전반

7. 프로그램

군산책문화발전소, 시립도서관관리과
-프로그램 기획, 초청 및 운영 전반

8. 굿즈

군산책문화발전소, 소통협력센터 군산
-굿즈 제작 및 관리

9. 공간 디자인 및 설치

군산책문화발전소, 우만컴퍼니, 소통협력센터 군산
-실내 공간 연출 및 설치
-설치 일정 및 인력 관리

10. 참가사관리

군산책문화발전소
-참가사 선발, 안내 및 응대

운영 주체 간의 적절한 업무 분담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격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군산책문화발전소, 센터, 도서관 대표자들로 꾸러진 운영위원회에는 회의마다 많게는 10명, 적게는 6명이 참석하여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실무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운영위 회의와는 별도로 실무 담당자들은 수시로 온·오프라인에서 만나 행사 준비를 진행했다.

2. 기획·운영사 선정 및 방향성 설정

‘군산북페어 2024’의 기획·운영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했다. 입찰에는 복수의 제안사가 참가했으며, 과업에 대한 이해도, 운영 방향의 참신성,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산책문화발전소가 최종 선정되었다.

군산책문화발전소는 입찰 제안에서 북페어의 운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전국적인 로컬

군산북페어는 외견상 지방의 소도시에서 열리는 북페어이지만, 문화적 차원에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바로 지금 치열하게 논의되고 탐구되어야 할 책 문화의 과제를 북페어의 주요 어젠다로 삼고, 이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뜻이다. 가령 참가사는 ‘규모와 상관 없이’ 한국 출판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팀을 선정한다. ‘전시’에 중점을 두고, 그 속에 출판의 다양한 쟁점과 흥미, 트렌드를 창의적 형식에 담아 발신하는 것 역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전략이다.

2. 커뮤니티로서의 북페어

북페어가 섬처럼 흩어져 있는 출판인, 서점인, 작가가 예외적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장소임을 인식하고, 이들 간의 교류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다.

3. 아카이빙 기관으로서의 북페어

북페어에 출품된 주요 도서를 포함, 북페어의 정체성과 연관된 서적, 오브젝트, 공식 행사 관련 기록을 충실하게 아카이빙한다. 장기적으로는 아카이브를 통해 군산북페어가 일년 내내 활성화 상태로 있도록 만든다.

4. 군산 서점들의 북페어

군산에서 활동하는 전통적인 중형서점부터 조그만 독립서점까지, 군산 전역의 서점들이 뜻과 힘을 모아 여는 북페어를 지향한다. 지역에도 북페어가 필요하다는 것, 내용뿐만 아니라 감수성 측면에서도 다른, 새로운 북페어를 열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회합과 논의, 실무를 진행한다.

방향성 설정 이후, 북페어를 준비 과정에서 내려야 하는 수많은 결정의 기준은 항상 ‘군산북페어 2024의 정체성을 얼마나 잘 살릴 수 있는가?’에 두고자 노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북페어에서 쉽게 볼 수 없던 장면들을 만들기 위해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고, 지역 행사의 관행을 과감히 생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또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역과 국적을 넘어 북페어와 출판 분야에서 풍부한 경력과 이해도를 가진 전문가들과 협력했다. 이러한 시도들이 모였기에 ‘군산북페어 2024’는 첫해부터 뚜렷한 색깔을 지닌 행사라는 평을 받을 수 있었다.

3. 주요 행사: 북마켓

북마켓은 북페어의 핵심적인 행사로, 행사 전체의 성공 여부와 직결된다. 북마켓의 성공은 참가사와 방문자 모두를 만족시킬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군산북페어 2024’는 참가사의 만족이 유의미한 수익과 의미 창출에서 오고, 방문자의 만족은 다양한 경험 창출에서 올 것이라 예상하며, 각각을 달성할 방안을 마련했다.

참가사 모집 및 선발

북마켓 참가사는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 동안 온라인으로 공개 모집했다. 공개 모집은 국내 참가사를 대상으로 보고 한국어로만 공고했으나, 국내 기반의 팀과 연합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외 팀에서 참가 신청을 한 경우도 있었다.

모집 홍보는 인스타그램과 웹사이트를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군산시의 보도자료 배포, 소통협력센터 군산 뉴스레터와 메일링, 2024년 5월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한 군산 서점 부스에서의 엽서 배포, 군산책문화발전소 회원 서점들의 개별 홍보를 통해 최대한 다양한 창작자들에게 행사 개최 및 공모 소식이 닿을 수 있도록 했다.

공개모집 단계부터 참가사의 다양성과 참신함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모색했다. 그중 하나는 활동 이력이나 발행한(혹은 발행 예정인) 책의 이미지는 소셜 미디어 계정 또는 웹사이트로 대체하고, 대신 자기 소개와 지원 동기를 장문의 글로 받는 것이었다. 상대적으로 활동 이력이 적은 지원자도 돋보이는 아이디어와 진정성 있는 출간 계획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다.

선발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전원이 모여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 기존 북페어나 지역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었던 창작자를 선발하되, 다양한 연령대와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은 지역 행사의 전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책을 펴내거나 유통하는 출판사와 서점, 시니어 창작자로 이루어진 출판사 등 고르게 선발될 수 있도록 살폈다.

최종 지원한 참가사 개수는 318개, 선발 경쟁률은 약 3:1이었다. 이 중 참가사 110개가 선발되었다. 신청자의 수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아, 군산 기반의 신청자들은 연합 부스로 참여, 보다 많은 외부 참가사를 초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결했다.

‘군산북페어 2024’의 북마켓에는 총 100개 부스가 펼쳐졌다. 출판사, 서점, 작가 외에도 디자이너, 개인 제작자, 헌책방, 영화제, 학교 등 기존 북페어에서는 쉽게 만나볼 수 없었던 전국 각지의 참가사 110개가 참여했으며, 일본과 대만의 5개 초청팀도 함께 자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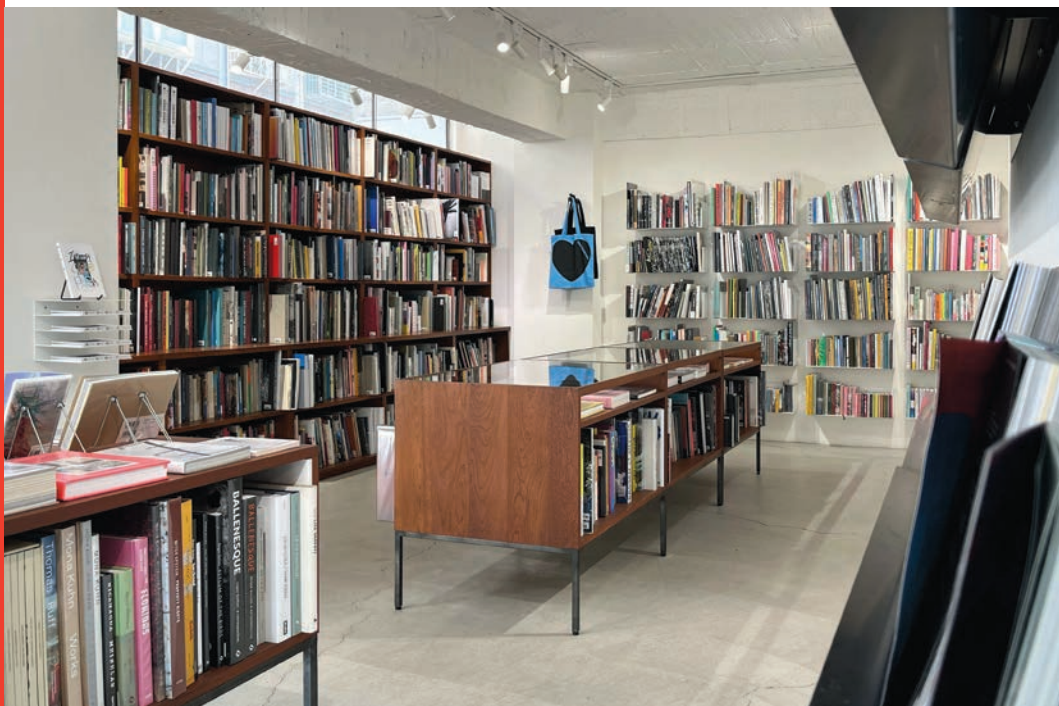
개약 초청

지역에서 열리는 북페어이자 서점들이 힘을 모아 여는 북페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외 참가자 역시 일본과 대만의 지역 서점을 고루 초청하고자 했다. 해외 참가자 섭외 명단은 운영위원회 내부 리서치 및 해외 서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타지역 서점 전문가들의 자문과 추천으로 작성했다. 7월 말, 참가자 5팀의 참가가 최종 확정되었다.



B & B

비엔비(B&B)
도쿄, 일본



moom

뭌 북숍(Moom Bookshop)
타이페이, 대만

IN/SECTS

인섹츠 퍼블리싱(IN/SECTS
Publishing)
오사카, 일본



Artapie Library

本册
READING & EXHIBITION

BOOK SITE

아트큐파이(ArtQpie)
타이중, 대만



ホホホ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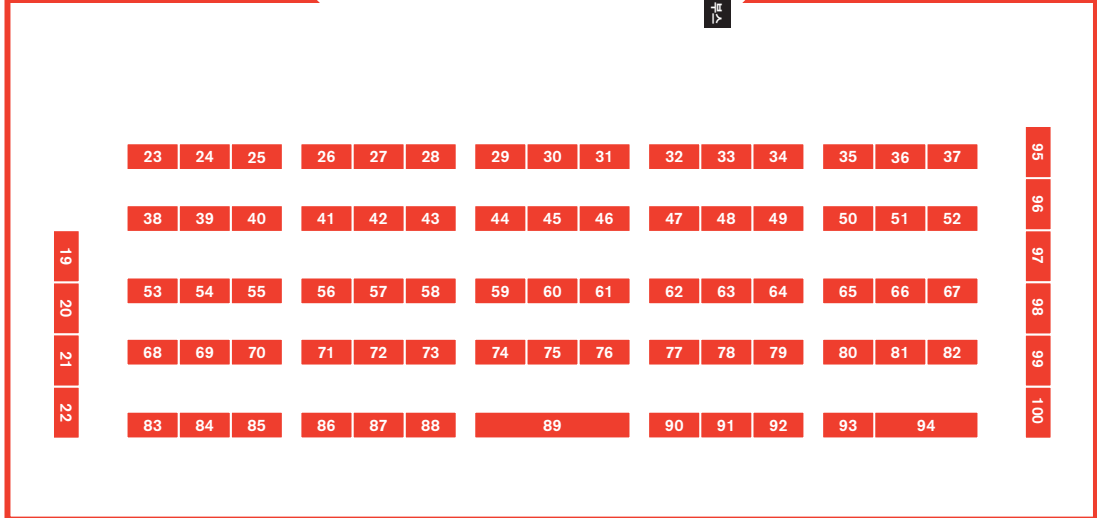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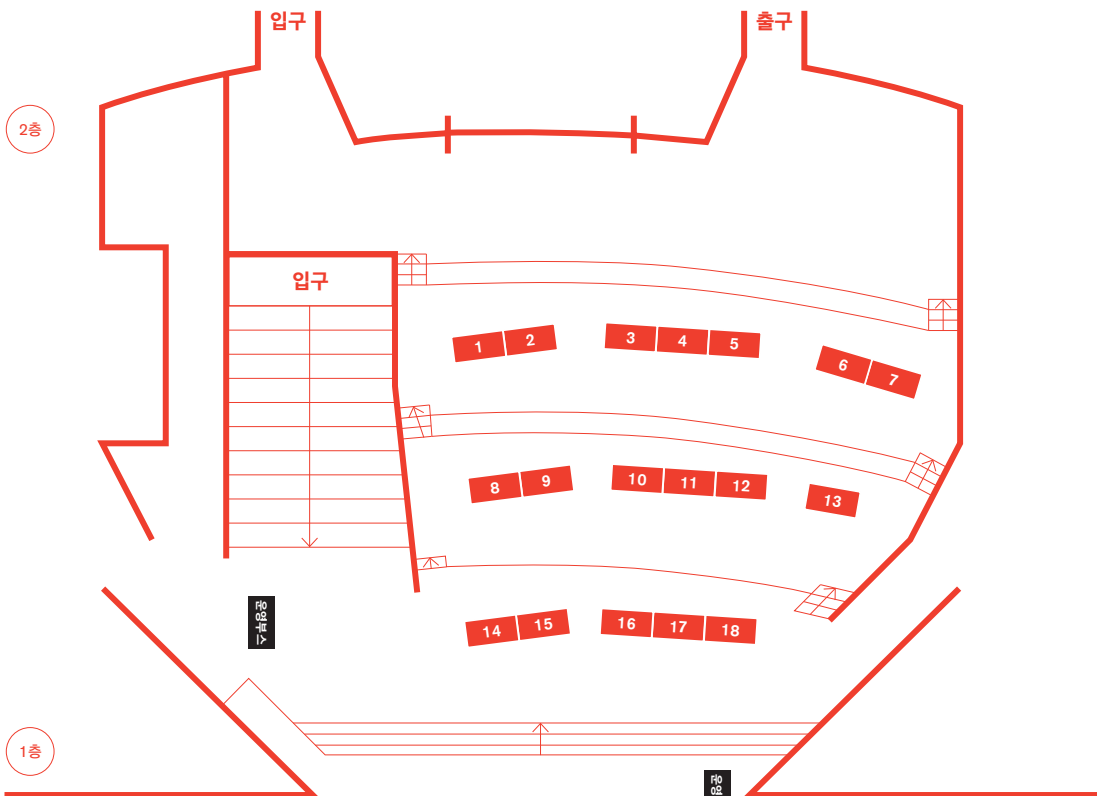
호호호좌(Hohohoza)
교토, 일본

해외 참가사들에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강연 진행을 미리 제안했다. 아울러 행사 전에 서면 인터뷰를 요청하여 이를 리플렛에 수록하고자 했다. 이는 그들의 참가가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와 의미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함이었다.

부스 구성 및 규모

‘군산북페어 2024’의 모든 부스 크기는 150cm로 동일했으며, 팀당 1개 부스 제공을 원칙으로 했다. 이는 부스의 규모보다 구성에 집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단, 북페어 측의 요청으로 연합으로 참가하게 된 군산의 일부 연합 부스에는 참가사 개수를 고려, 2-3개의 테이블을 지급했다.

‘군산북페어 2024’는 별도의 부스비를 책정하지 않았다. 많은 참가사가 부스비가 무료인 점이 참가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 A-Z**
- 24 1도씨와 온도들
1docci and ondos
- 96 AABB OS
AABB OS
- 59 B&B
B&B
- 7 SoA×이민규
Society of Architecture
- 가**
- 39 가망서사
Gamang Narrative
- 13 갈매기 자매
Kalmegi Kamome Sisters
- 26 고스트북스
GhostBooks
- 70 공출판사
Kong Publishing Co
- 84 광합단
Gwanghapdan
- 67 구불
Gubul
- 64 구픽
GUFIC
- 94 군산초단편문학상
Gunsan Hyper Short Literature Award
- 47 군산평화박물관 /
눈맞출작가단 / 수라와
갯지렁이들
Gunsan Peace Museum & Eye
Contact Writers & Sura and
lugworms
- 51 굴프레스
Guilpress
- 98 글라프레스
Glas Press
- 49 금호강 디디다×도시공원
기록 활동×팔현습지를
지키는 예술행동
River Didida×Cityparks
Archive×Palhyun Art Activism
- 65 기획:3
Planning:3
- 15 까만개
Kkamanke
- 나**
- 92 남해의봄날
Namhaebomnal
- 21 낮은리북스
Not Only Books
- 76 내일을여는책
Go Tomorrow
- 5 노네임프레스
(No-Name) Press
- 82 누크
NOOK
- 11 닌겐페이퍼프레스
Ningen Paper Press
- 다**
- 14 스튜디오 손손
Hyunkyung Son
- 19 스페인책방
Spainbookshop
- 87 심리서점 쓰담
Ssdambooks
- 라**
- 58 아트큐파이
ArtQpie
- 31 안온북스
Anonbooks
- 74 앤의서재
Anne's Library
- 78 어떤책+에이치비프레스
A Certain Book & HB Press
- 69 에이커북스토어
AKER Bookstore
- 40 열매하나
Yeolmaehana
- 50 오큐파이 더 시티
Occupy the City
- 75 움직씨 출판사
Oomzicc Publisher
- 20 워크룸 프레스
Workroom Press
- 56 위고
Hugo Publishing
- 54 유물시선
Yumoolesyes
- 16 유연성클럽
TheFlexibilityClub
- 33 유유
UU Press
- 35 이응
IIOIO
- 23 이후북스
Now_Afterbooks
- 62 인공위성+82
Satellite+82
- 60 인섹츠 퍼블리싱
IN/SECTS Publishing
- 32 일구팔사북스
1984BOOKS
- 자**
- 8 장명날
Jangmungnal
- 2 전주국제영화제
Jeonju Intl. Film Festival
- 68 조용한흙분쇄
Colors Of Quiet Tingle
- 38 조현진
Jo Hyunjin
- 18 좀비출판+이미지걸스
Zmbiprs & img.girls
- 6 진짜공간
JinzaSpace
- 27 쪽프레스
Jjokkpress
- 차**
- 45 책덕
Bookduck
- 79 책방 뚝뚝
Bookshop Ttoggtag
- 80 책방 소리소문
SorisoMoonbooks
- 93 책방앗간
Bookmill
- 43 출판공동체 편얌
Editorsdontedit
- 71 출판사 방
Bang
- 카**
- 28 키오스크키오스크
KioskKiosk
- 타**
- 10 타바코북스
Tabacobooks
- 48 탐조책방
Bird Books
- 17 팀쓰리테일즈
Team Three Tails
- 파**
- 95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
PaTI
- 77 포도밭출판사
Podobat Publishing Company
- 9 포포타무/pokotame
Popotame
- 프로파간다
Propaganda
- 36 프론트도어
frontdoor
- 3 플레인아카이브
Plain Archive
- 86 피스 카인드 홈
Peace Kind Home
- 하**
- 72 하우위아
How We Are
- 89 한길문고 / 책나물 /
봄날의산책 / 종이와 연필사
Hangil bookstore & BookNamul &
Bomnalsanbook & Paper&Pencil
- 55 호미와 낫
Hoes and Sickles
- 61 호호호좌
Hohohoza
- 83 화원
Hwawon
- 97 후진
Huuzine
- 63 힐데와소피×이나영책방
Hilde and SophieLeenayeong
Bookshop

판매 촉진 : 쿠폰 및 리워드

북마켓의 판매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도서 쿠폰과 리워드를 마련했다.

쿠폰은 부스에서 도서와 굿즈를 구입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품권으로, 총 1,000장을 발행했으며 이 중 80% 이상이 회수되었다.

쿠폰은 사전 및 현장 이벤트와 연계하여 홍보 효과를 함께 얻고자 했다. 사전 배포는 군산책문화발전소 회원 서점 자체 이벤트와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이벤트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현장 배포는 오픈런, 숙박 인증, 현장 이벤트 참여와 연계하여 진행했다.



사전 배포 - 서점

북페어 1개월 전부터 군산책문화발전소 회원 서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쿠폰을 배포했다. 배포 방식은 서점별로 상이했다. 일정 금액 이상 책을 구입한 손님에게 리워드로 증정하거나, 서점 행사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기간 중 서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통해 군산시 전역에서 북페어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고, SNS만으로는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 현장의 분위기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만 현장 배포에 비해 사전 배포를 위한 일관된 기준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사전 배포 -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이벤트

‘군산북페어 2024’ 포스터, 엽서,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물과 함께 찍은 사진을 해시태그(#군산북페어2024)와 함께 올리면, 행사 당일 현장에서 쿠폰과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독특한 발상이 돋보이는 게시물에는 군산 기념품을 증정하는 ‘특별상’ 이벤트도 진행하고자 했으나, 참가가 저조하여 실행하지는 못했다.

현장 배포

북페어 기간 중인 8월 30일과 9월 1일, 로비에 쿠폰 현장 배포 부스를 설치하고 여러 현장 배포 이벤트와 해시태그 이벤트 참여자 쿠폰 교환을 진행했다.

숙박 인증

북페어 기간 중 군산시 관내 숙박 예약(문자, 숙박앱 화면 등)을 인증한 방문자에게 선착순으로 쿠폰을 배포했다. 가장 늦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던 숙박 인증 이벤트 배포분량도 양일 모두 오전에 마감되어 북페어가 군산시의 관광객 유입에도 기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현장 이벤트

‘나의 인생책 추천’과 ‘군산북페어 오행시’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벤트는 지역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체험 부스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을 좀 더 색다르고 의미 있게 풀어보고자 한 시도였다. 쿠폰 소진 후에도 많은 방문자들이 이벤트에 참여하여 로비에 두 가지 종류의 카드가 가득 붙어있는 광경이 연출되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방문자 역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또 하나의 주체로서 북페어에 참여하고 있음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리워드로는 도서 3권 이상 구매 인증 시 ‘군산북페어 2024’ 에코백 또는 후원 물품인 빈브라더스의 콜드브루 캔 중 1종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리워드는 종류별로 매일 선착순 100여개씩 배포했는데, 양일 모두 개장 후 2-3시간 안에 소진되었다. 리워드 중에도 에코백의 인기가 높았다. 향후 행사에는 수량을 조금 더 넉넉하게 제작하는 방향도 검토해볼 만하다.



참가사 지원

전국의 다른 북페어와 행사를 참고하여 참가사 편의를 위한 지원 방안을 준비했다.

택배 보관

북페어 시작 일주일 전부터 종료 일주일 후까지 판매용 및 재고 서적과 물건을 보관하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매일 30여 개 이상의 택배 박스가 배달되었고, 행사 직전 3일 동안에는 동일한 택배사 차량이 하루에도 여러 번 회관에 물품을 배달했다. 택배 보관은 전국적인 참가사 유치에 가장 필요한 지원이었으나, 관리를 위한 노력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실무였다.

먹거리 및 숙소 정보

군산회관이 위치한 나운동은 주거 지역으로, 관광지인 월명동이나 영화동에 비해 식당이나 카페 관련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근 식당 및 관광지 정보를 담은 안내 자료를 준비하였고, 참가사 사전 안내 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했다. 행사 종료 후 참가사 후기를 통해 이러한 정보가 군산 방문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군산시 내 여러 게스트 하우스와 연계하여 참가사에 숙소 할인을 제공했는데, 이에 대해 “도시 전체가 북페어에 온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느낌을 받았다”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트워킹

‘커뮤니티로서의 북페어’를 지향하는 ‘군산북페어 2024’는 전국 각지에서 오는 참가사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사 기간 중 네트워킹 파티 ‘책은 친구를 만든다’를 준비했다.

군산책문화발전소가 주최한 이 파티는 1일차에 당일 행사 종료 후 구도심에서 열렸다. 네트워킹 파티에는 참가사, 운영진, 후원사 중 사전에 신청한 희망자들이 참석할 수 있었다. 네트워킹 파티 비용은 후원과 네트워킹 파티 참가비로 충당했다.

4. 주요 행사: 프로그램

‘군산북페어 2024’의 ‘프로그램’은 행사의 또 다른 중심축이었다. 기존 ‘부대 행사’의 틀을 넘어, 책을 둘러싼 담론과 논의, 문화가 활발히 교류하고, 대중성과 전문성을 폭넓게 만족시키며, 문학인, 서점인, 평론가, 디자이너, 그리고 관객이 소통하는 행사를 목표로 삼아 과감한 규모와 참신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자 했다.

짧은 준비 기간과 빠듯한 인력, 그리고 첫 회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규모와 내용 모두에서 호평을 받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담당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온전히 맡아 결정하고 실행했기 때문이었다.

우선, 책 문화의 당사자로서 트렌드를 가장 기민하게 감각하고 유의미한 담론을 제시할 수 있는 서점들의 모임인 군산책문화발전소가 프로그램마다의 주제와 구성을 맡았다. 북페어가 개최되는 공간에 대한 이해와 문화예술 행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된 센터가 공간의 배치와 구현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더불어, 시민 대상의 대규모 강연을 꾸준히 진행해오면서 모객과 운영의 노하우, 그리고 집행 체계를 갖춘 시립도서관관리과는 섭외와 현장 운영을 지휘를 맡았다. 각 주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한 덕분에, 결과는 1+1+1=3을 넘어 더 큰 시너지로 이어질 수 있었다.

3개의 전시, 5개의 주제 토크 및 대담, 2개의 이벤트(낭독회, 워크숍)로 이루어진 총 10개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다. 전시는 행사 운영 시간 동안 별도의 관람료나 예약 없이,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다. 전시 이외의 프로그램은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활용해 사전 예약을 받되, 당일 취소석과 잔여석에 한해 현장 입장을 허용했다. 프로그램마다 행사 시작 1시간여 전부터 현장 입장 줄이 생길 정도로 관람객의 호응이 높았다.

전시

1.서점 문화 전시: 가방은 아름답다-세계의 서점 토트백 컬렉션

전 세계 도시 곳곳,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활약 중인 서점의 토트백 200여 개를 수집해 제시한 오브젝트 전시. 독자에게 인기 있는 기념품이자 굿즈이면서 서점마다의 개성과 정체성이 프린트된 토트백을 통해 세계 서점의 다양성과 활력을 전하고자 했다.



2.북디자인 전시: 펼친 면의 대화-군산에서

책의 구조와 조형을 탐구하는 북디자이너를 조명하는 전시. 2024년 4월 아트북스에서 출간한 『펼친 면의 대화 - 지금, 한국의 북디자이너』의 전시 버전으로 도판으로 수록된 오브젝트를 실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트북스의 후원으로 행사와 함께 책의 저자와 북디자이너 1인이 자리한 연계 토크를 마련했다.

3.아카이브: 열람실-2000년 이후 독립출판 아카이브

한국 독립·예술 출판 분야에서 나타났던 주요 독립출판 인쇄물의 행로를 선보이는 아카이브 전시. 지난 15년 이상 독립출판과 디자인 분야의 활동상을 기록해 온 시각 저널 『GRAPHIC』*과의 협업 전시로, 기획자들이 가진 전문성과 역량이 발휘된 전시이다.

*『GRAPHIC』은 군산책문화발전소의 김광철 대표가 2007년 창간한 디자인 전문 독립 계간지이다.



군산북페어 2024 프로그램

워크숍

진(Zine) 제작을 위한 바인딩 실습 김명수 북 아티스트

8.31(토) 14:00-17:00
9.1(일) 14:00-17:00

주제 토크 및 대담

주제 1: 도시가 책을 판다 (Books For Sale)

1) 주제 토크: 서점은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연사/ 김인혜(더폴락)×이기섭(땡스북스)×정은영(봄날의책방)

진행/ 정지혜(사적인서점)

일시/ 8.31.(토) 16:00 - 17:30

2) 주제 강연: 책방 B&B 12년, 요즘 생각하는 것들

연사/ 우치누마 신타로(도쿄 B&B)

일시/ 9.1.(일) 11:00 - 12:00

주제 2: 책을 탐구한다(Sail For Books)

1) 특별 대담: 황석영×류보선 - 작가와 떠나는 책으로의 항해

일시/ 8.31.(토) 13:30 - 15:00

2) 주제 토크: 박참새×서한나×조예은 - 우리 시대 책의 의미는?

진행/ 이다혜(씨네21 기자)

일시/ 9.1.(일) 13:30 - 15:00

3) 전시 연계 토크: 전가경×박소영 - 펼친 면의 대화

일시/ 9.1.(일) 15:00 - 16:30

이벤트

1. 낭독회 - 문학작품에서 찾은 군산

낭독: 김현×유현아×이소연×전욱진 (시인)

일시/ 8.31.(토) 15:00 - 16:30

2. 워크숍: 진(Zine) 제작을 위한 바인딩 실습

진행/ 김명수(북아티스트)

일시/ 8.31.(토), 9.1.(일) 14:00 - 17:00 (2회 진행)

5. 그래픽 디자인

‘군산북페어 2024’의 메인 그래픽 디자인은 근대 도시의 모태가 된 블록형 도시 구조, 항구 도시를 상징하는 물결 패턴이 파동을 일으키는 형상, 서해안의 낙조에서 온 붉은색을 담아 군산의 지역성을 강조했다. ‘군산북페어’라는 타이틀, 그리고 슬로건 “Books For Sale, Sail For Books” 외 나머지 요소를 과감히 축소하고 생략하여 군산북페어의 지향점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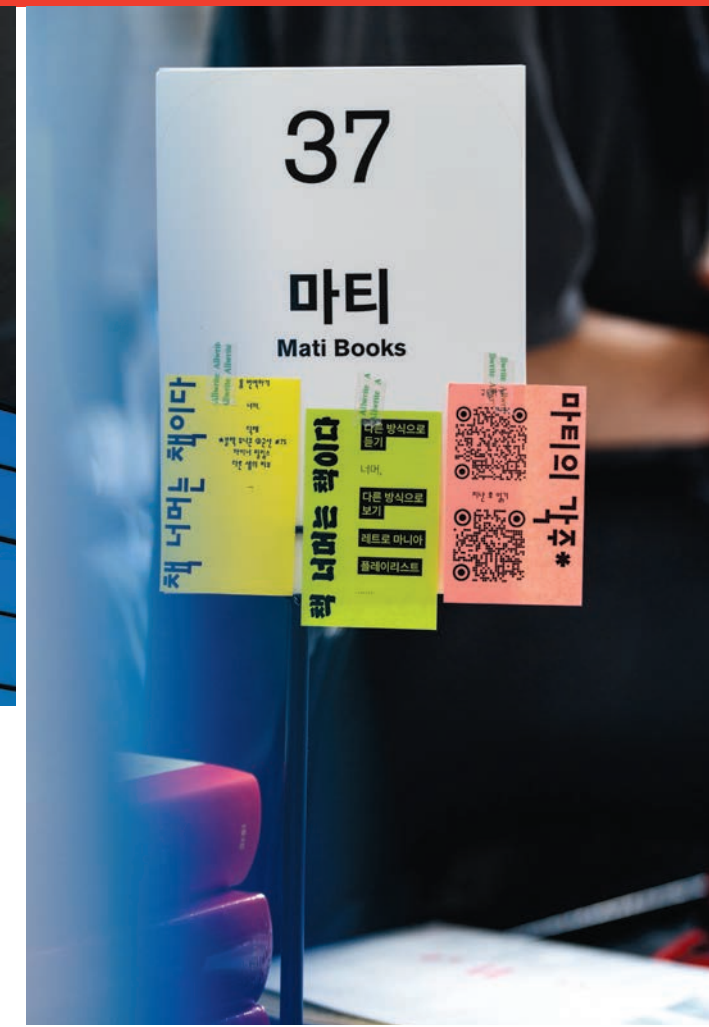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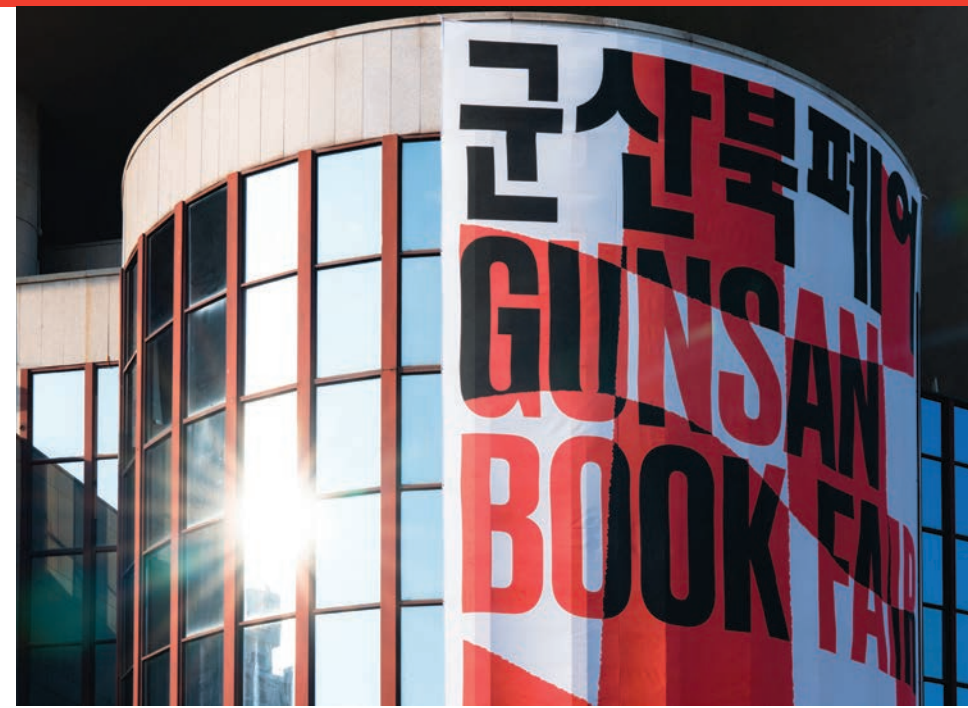
각종 홍보물, 굿즈, 사이니지, 엽서, 출판물 등 행사에 필요한 다양한 디자인 작업을 한 디자인 스튜디오(프론트도어)에서 맡아 진행하여, 행사 전반에 걸쳐 메인 그래픽 디자인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사전 홍보 기간 들려온 기대 평과 행사 종료 후 여러 채널로 확인할 수 있는 후기 모두에서 메인 디자인에 대한 언급은(주로 긍정 평가와 함께)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반응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은 디자인을 개발하고 개발된 디자인 문법이 통일적으로 적용한 노력이 행사의 완성도와 흥행 모두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그래픽 디자인 작업 범위

분류	항목	용도
포스터	메인포스터	키 비주얼, 온·오프라인 홍보
포스터	메인포스터 (SNS용)	온라인 홍보
홍보물	가로등 현수기	옥외홍보
홍보물	전광판 및 웹배너 (포스터 배리에이션)	군산시청, 군산시립도서관, 국립군산대학교 웹사이트 및 LED 전광판 송출
홍보물	현수막 (포스터 배리에이션)	회관 내부 및 외부, 그래픽숍, 전주, 군산대, 시청, KTX 익산역 조명 광고, 도서관, 육교
홍보물	현수막(프로그램)	군산시립도서관 홍보 부착용
홍보물	엽서 2종	사전 홍보용
운영용 시각물	프로그램 타이틀 7종	프로그램(토크, 워크숍) 실별 부착
운영용 시각물	프로그램 배경 7종	프로그램(토크, 워크숍) 진행 시 모니터에 송출
운영용 시각물	참가사 명판	
운영용 시각물	쿠폰	
굿즈	군산북페어 2024 예코백	
출간물	중합 안내 리플렛	행사 정보 전달, 해외참가사 인터뷰

그래픽 디자인 담당
프론트도어



6. 출간물 - 종합 안내 리플렛

‘군산북페어 2024’ 종합 안내 리플렛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아카이빙 기관으로서의 북페어’를 실현하는 장치로서 행사의 주요 면면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모든 참가사의 상세 소개를 담은 다섯 페이지 분량의 ‘참가사 소개’와 해외 참가사 서점 5곳과의 서면 인터뷰이다.

실물 리플렛은 행사 개최 1주 전 주말부터 도서관, 지역 서점, 관광안내소 등에 사전 배포했으며, 행사장에서는 입장 스티커와 함께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리플렛 전문을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 접근성을 높이고, 기록물로 활용될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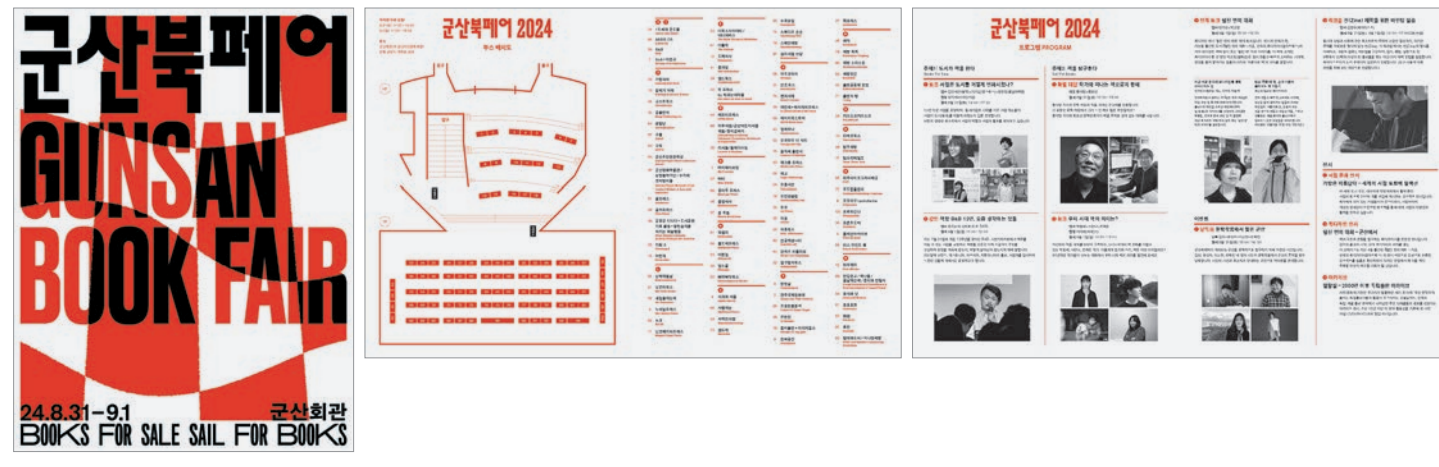
행사 기간 동안 많은 관람객이 리플렛을 챙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북페어’ 행사인 만큼, 종이로 제작된 출간물에 대한 애정과 선호가 작용했으리라는 추측과 함께 리워드 배부된 예코백 외에 별도의 기념품이 없었기 때문에 리플렛이 기념품의 역할도 했으리라고 추측한다.

관람객의 연령대가 다양하고, 그 중에서도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의 행사인 만큼, 모든 상세 정보를 온라인으로만 공개하기보다는 실물 출간물을 소량이라도 제작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리플렛 사양

사이즈	230×300(mm)
종이	백상지
인쇄	양면 4도 컬러 인쇄
쪽수	20쪽
부수	8000부

리플렛 구성



표지

부스배치도

프로그램 소개



참가사 소개

해외 참가사 인터뷰

환영의 말 및 크레딧

7. 웹사이트

‘군산북페어 2024’의 웹사이트는 메인 그래픽 디자인을 수용하면서 웹의 고유한 기능과 필요한 역할을 고려하여 디자인 및 개발했다.

웹사이트는 행사 준비 기간부터 종료 이후까지, 타임라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차례 업데이트했다.

웹사이트 업데이트 과정



웹사이트 개발 및 디자인

오렌지 슬라이스 타입(장우석, 오예슬)

1차 오픈

기간: 2024.5.20. - 2024.8.19.

목적: 참가사 모집

내용: 군산의 주요 장소 이미지를 활용하여 지역성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복잡한 상세 페이지들을 만들기보다 참가사의 ‘참가 신청’ 기능에 집중했다.

2차 오픈

기간: 2024.8.19. - 본 행사

목적: 행사 안내 및 프로그램 신청

내용: 참가사 소개와 프로그램 예약 등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즉시 참가사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북페어의 중심이 되는 ‘북마켓’ 관련 정보를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부스배치도와 종합 안내 리플렛을 PDF로 다운로드 받도록 게시하여 접속자가 어디서든 행사와 관련한 상세 소식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3차 오픈

기간: 행사 종료 후 - 현재

목적: ‘군산북페어 2024’ 아카이빙

내용: 현장 사진이 추가된 버전이다. ‘아카이브’ 페이지에서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 기간 중 열람할 수 있었던 모든 정보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8. 홍보

‘군산북페어 2024’의 홍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현수막, 옥외광고 등 유가 홍보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 개최 소식을 널리 알렸다면, 군산책문화발전소 회원 서점들이 기존에 구축해 둔 서점, 출판계 네트워크를 통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연스러운 홍보가 이루어졌다.

참가사 선정 이후에는 참가사들의 자체 부스 홍보가 이어져 행사 홍보가 탄력을 받았다. 매체 홍보의 경우, 여러 절차와 형식, 그리고 시 관계자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 홍보를 담당하던 센터의 홍보 담당자가 맡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온라인 홍보 전담 인력을 별도로 두지 못해 주기적인 홍보가 어려웠다. 특히 웹사이트의 경우, 행사 내용 업데이트가 많이 지연되어 행사가 임박했을 때 이루어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음 행사에서는 온라인 홍보를 전담할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여 사전에 정보 가공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홍보가 적시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통협력센터 군산 뉴스레터

소통협력센터 군산이 발행하는 뉴스레터에 참가사 모집과 행사 소식을 담아 총 2회 발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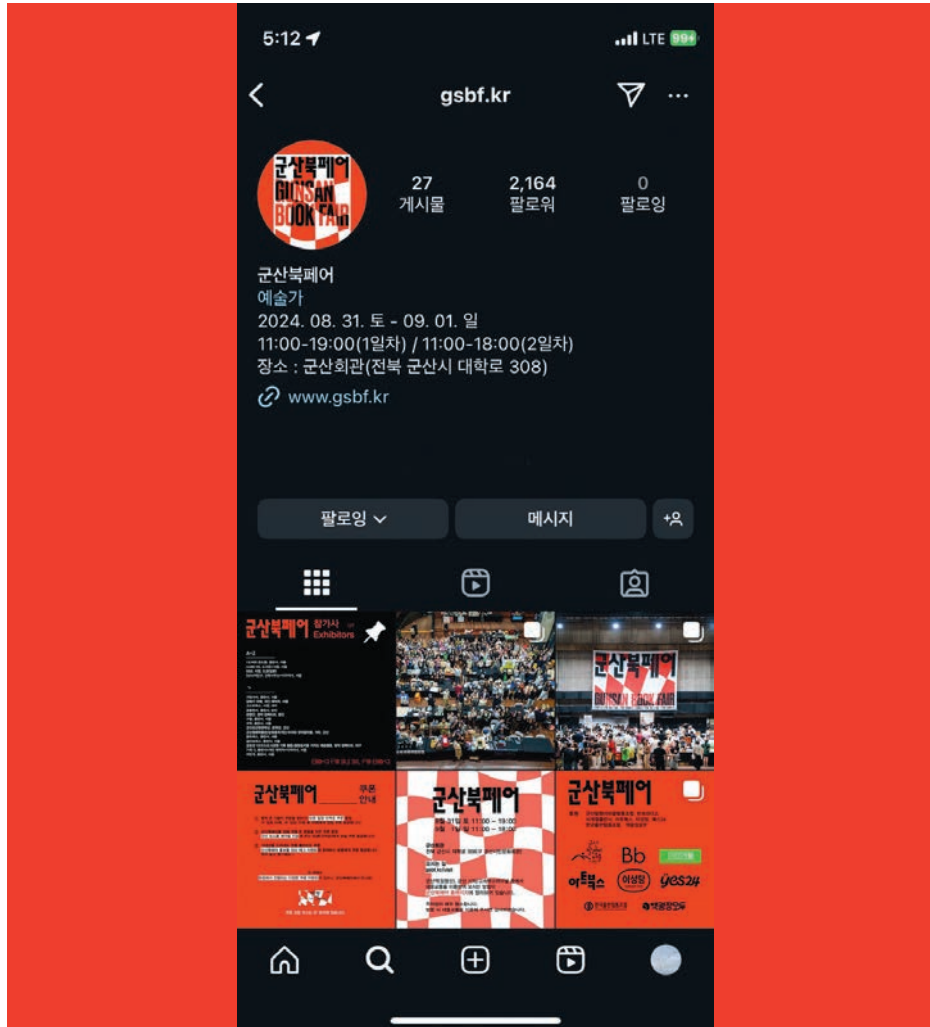
온라인 홍보

공식 인스타그램

참가사 모집부터 북페어 참가사 소개, 프로그램, 이벤트 등 각종 정보를 알렸다. 포스터 배포 및 쿠폰과 연계한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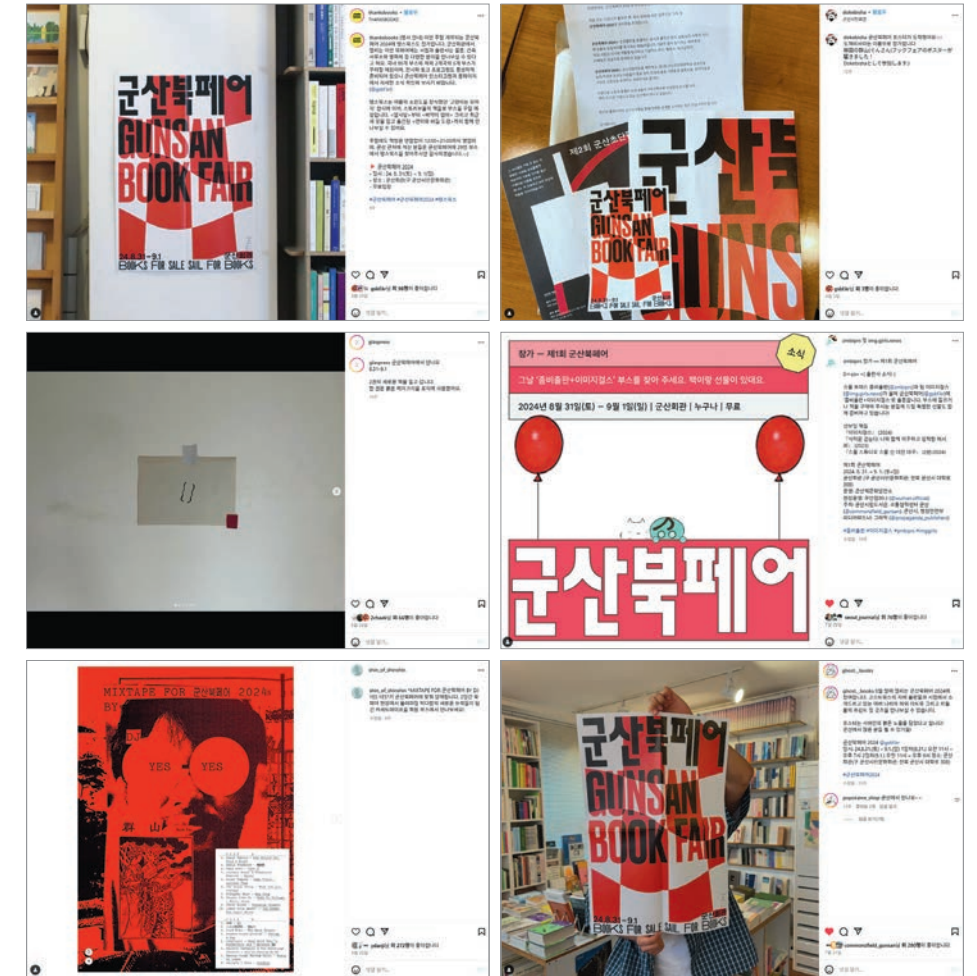
공식 웹사이트

참가사 모집, 프로그램 신청 경로를 웹사이트로 일원화하여 자연스럽게 웹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유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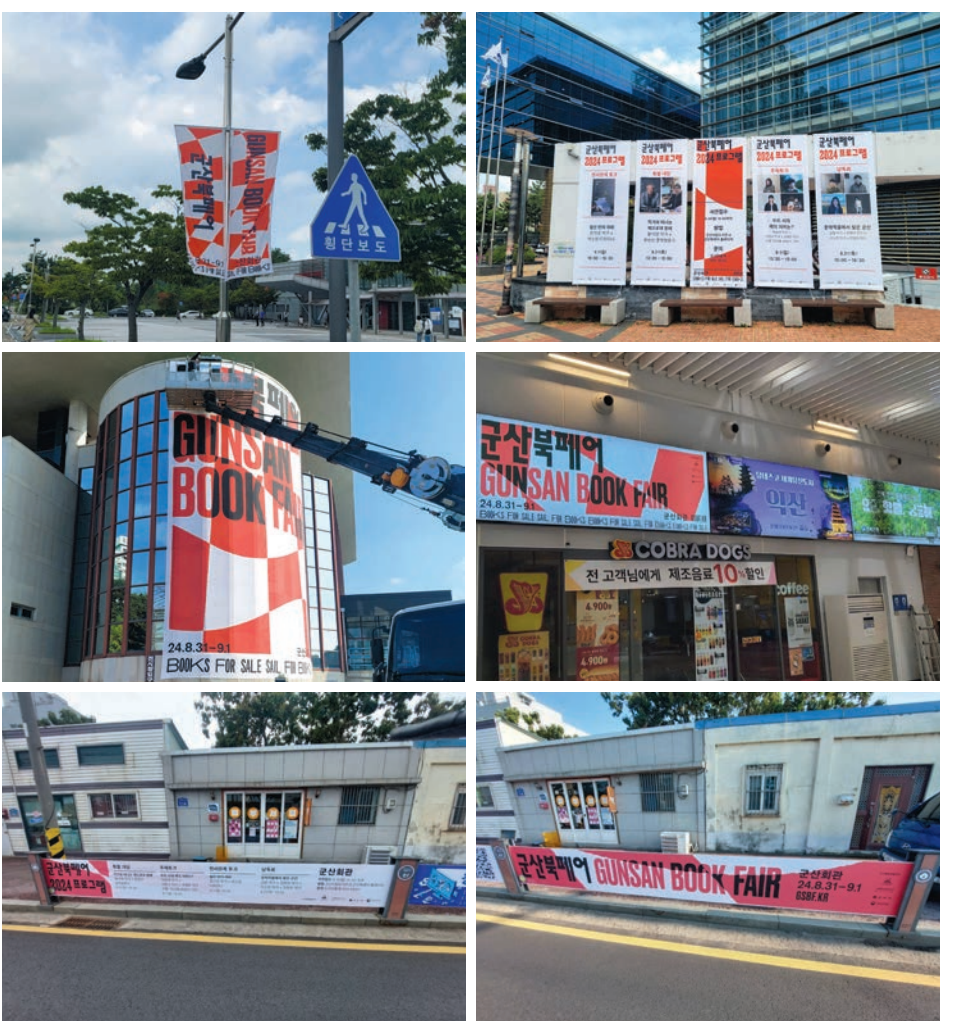
참가사 자체 홍보

다양한 지역에서 오는 참가사가 자체적으로 북페어 참여 소식을 공지하고 직접 부스를 홍보하는 것은 북페어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페어 준비 시에도 이 점을 인지하고, 참가사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공식 포스터와 SNS용 이미지 등 홍보 자료를 사전에 전달했다.



오프라인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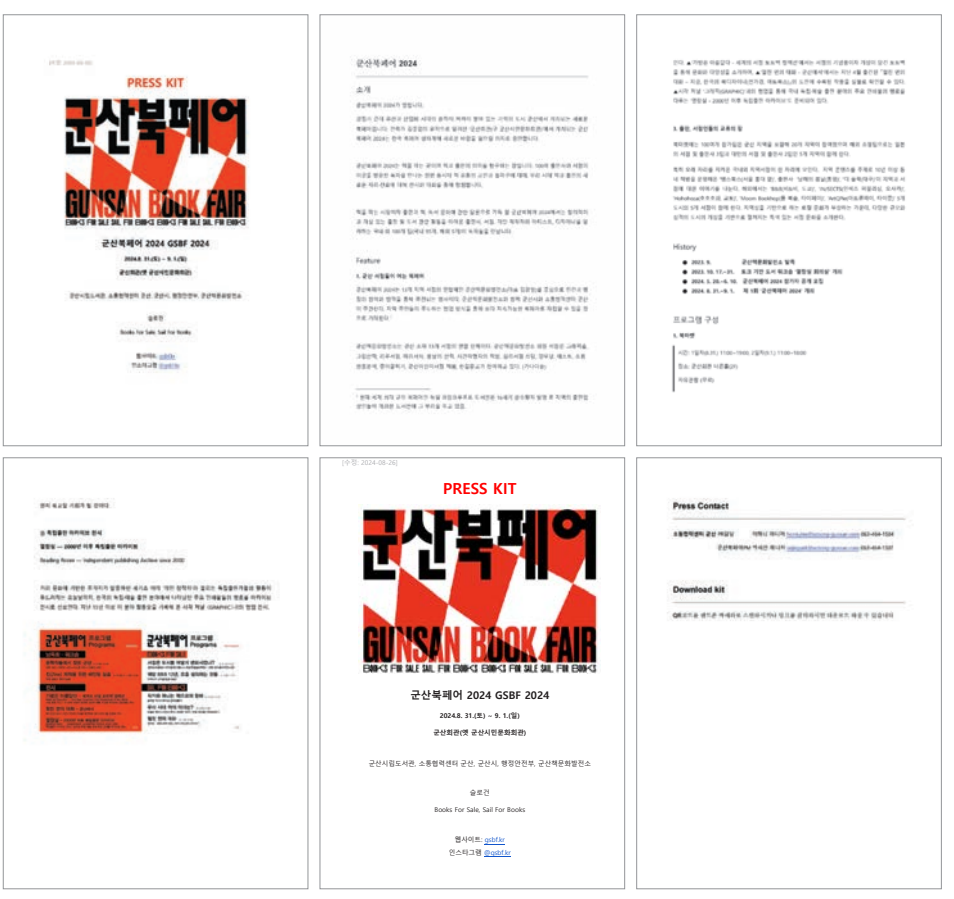
옥외광고
 군산회관과 군산시립도서관 건물을 활용한 대형 현수막과, 군산 전역에 가로등 현수막을 설치하여 도시 전체에 축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인근 생활권인 익산과 전주에도 현수막, 조명 광고를 설치하여 관객 유입을 유도했다.



보도자료
 군산시 도시재생과를 통해 참가사 모집(1회), 행사 소식(3회), 성료(1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대적인 보도자료 배포에는 군산시 도시재생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다.

매체 홍보

매체 홍보를 위해 군산시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로컬 및 출판 관련 뉴스레터/소식지 취재, 홍보를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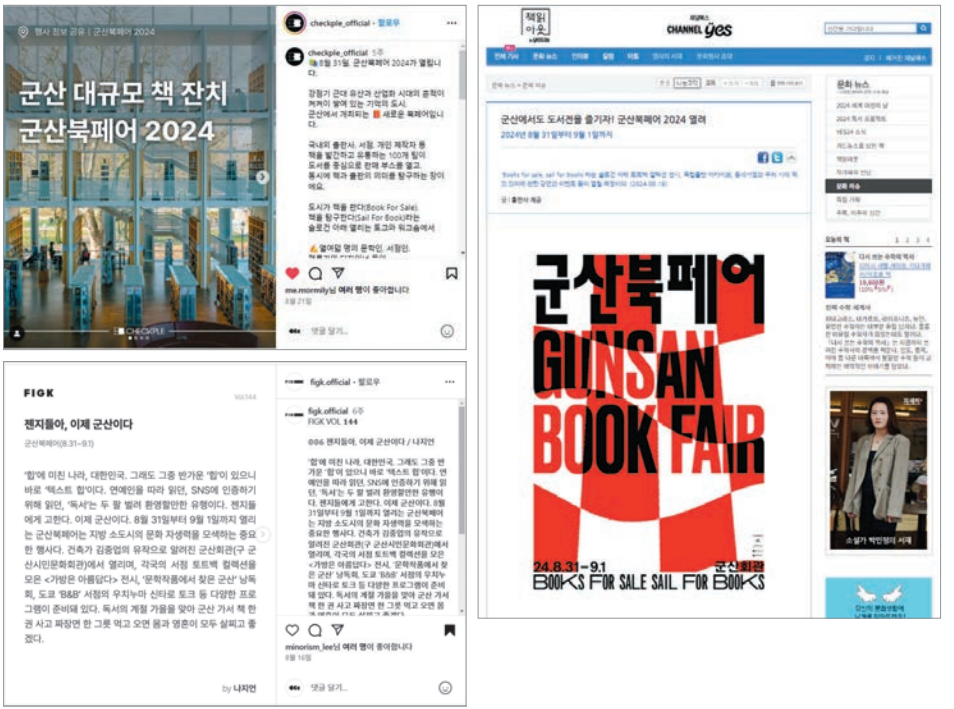
공문 및 포스터 배포
 군산시 도시재생과와 시립도서관관리과를 통해 읍·면·동사무소와 학교에도 공문을 발송하고 포스터를 배포했다. 또한, 동네마다 자리한 서점들에 엽서, 포스터, 리플렛을 비치하고 쿠폰을 배포하여 도시 전역과 다양한 연령층에 행사를 홍보했다. SNS를 통해 군산 관외의 공간 운전자 및 개인을 대상으로 포스터 배포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배포했다. 이를 통해 전국 곳곳 다양한 장소에서 '군산북페어 2024' 포스터와 엽서를 만날 수 있었다.

군산북페어 2024 포스터 배포 결과 - 지역별

전북(군산 포함)	57
서울	138
경기/인천	60
강원	11
세종/대전/충청	33
광주/전남	19
대구/경북	24
부산/울산/경남	22
제주	23
합계	387

서점 및 출판계 네트워크
 군산책문화발전소 서점들이 구축해 온 타지역 서점 및 출판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포스터를 발송하거나 정기 모임에서 북페어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졌다.

로컬 및 출판 관련 매체 - 뉴스레터, 소식지, 인스타그램 발송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프레시킷을 작성하고 관련 매체에 부지런히 발송했다. 매체 후원을 제안하여 온라인 채널에 개최 소식을 실은 경우도 있었다.



9. 협찬 및 후원

‘군산북페어 2024’의 공식 후원사로 대표적인 군산 기반의 기업 및 단체와 도서/출판계 기업 등이 참여했다.

후원사 리워드로는 공식 SNS와 웹사이트에 로고 노출 및 참가사 대상 홍보 메일링을 제공했으며, 후원사 방문 시 프로그램을 참관할 수 있는 게스트 명찰을 마련하여 제공했다.

군산책문화발전소에서 별도의 담당자를 두어 후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면서 리워드 안내, 정보 수집, 게스트 안내 등을 진행했다. 협찬 및 후원사 연결은 운영위원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조율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신속하고 꾸준한 사후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했다.

북페어 준비 초기에는 국제교류기금 지원, 협찬, 후원사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으나,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시도하지 못했다. 향후 행사의 지속적인 개최와 후원자 확보를 위해서는 후원사에게 적절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북페어 2024 공식후원사(가나다 순)



군산말랭이마을



빈브라더스



사계절출판사



아트박스



에스24



이성당



한국출판협동조합/책광장모두



10. 공간 운영 및 현장 진행

‘군산북페어 2024’는 개최된 군산회관의 리모델링 후 처음으로 개최된 대형 행사였으며, 센터에게는 회관의 사전 운영 행사이기도 했다. 때문에 북페어 행사를 위해 집기와 설비 마련은 물론,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검토와 준비를 제로베이스에서부터 구축, 점검, 보완하는 과제가 있었다. 특히, 구조적으로 즉각적인 개선이 어려운 부분들은 우선 순위에 두기 어려웠다. 이 문제들은 향후 행사 진행 시 반드시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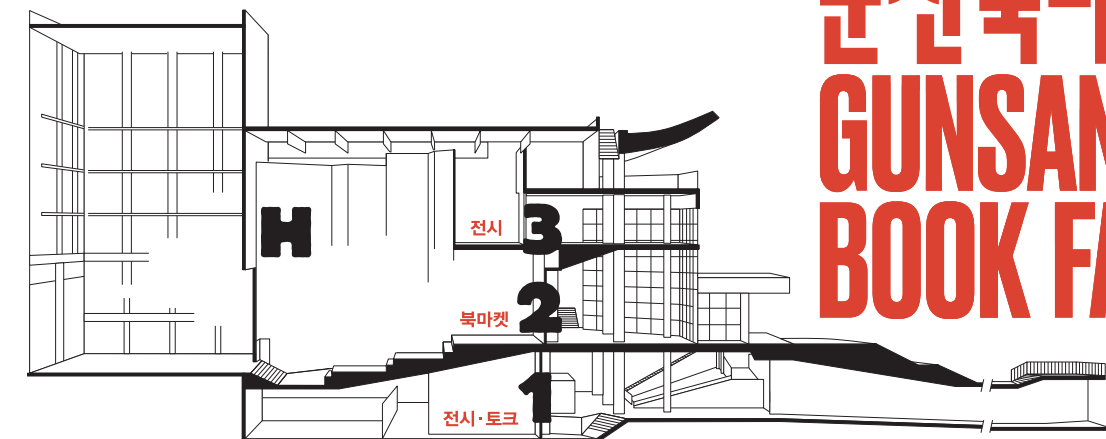
‘군산북페어 2024’는 군산회관의 1층 판 3개실과 아카이브 라운지, 2층 너른홀, 3층 라운지를 모두 사용하는 대형 행사였다. 1층에는 전시와 강연장, 의무실과 가족 수유실을 배치했으며, 2층은 북마켓, 3층은 전시 및 휴게 공간으로 활용했다.

공간

공간 조성

공간 조성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토크, 강연 등을 위한 무대를 만들고, 객석을 확보하는 공간 조성 과정에서 원하는 디자인의 집기를 임차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웠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저렴한 단가로 손쉽게 임차할 수 있는 집기를 구비한 지역 업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임차료가 두 배 정도 더 비쌌다. 타지역에서 조달하는 경우, 임차비보다 더 비싼 운송료를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접근이 필요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행사에서는 운영진의 이러한 어려움을 알게 된 군산 내 카페나 청년단체, 일부 서점에서 여러 집기류를 단기 임차해 준 덕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전시 및 공간 설치 과정에서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협력업체를 찾고 호흡을 맞추는 데에도 시행착오가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지역의 협력업체가 운영진의 요청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었고, 이 과정에서 운영진도 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군산북페어
GUNSAN
BOOK FAIR



동선안내 사이니지 부착 사진(좌), 동선안내물 설치 계획(우)

동선 계획

군산회관은 진입 동선이 여러 곳이고, 층층이 있어 공간 내부에서 층이 바뀌는 등 복잡한 구조의 건물이다. 이로 인해 방문자가 한 번에 동선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번 행사는 건물 내부 사이니지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열렸기 때문에, 동선에 대한 문의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하여 벽과 바닥 시트지, POP, 현수막, 출력물 부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람 동선을 유도하고 안내했다. 2024년 10월을 기점으로 군산회관 내부에는 화장실, 출입문, 가족 수유실, 관계자 출입 가능 여부 등 사이니지가 대폭 보강되어 향후 행사를 진행할 경우 사이니지 개발과 부착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출입 동선과 층 개념 전달을 위해 여전히 세밀한 안내가 필요하다.

냉방

행사 이틀 동안 시설 전체에 냉방 시설을 최대한 가동했으나, 실별 이용 인원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부분에서는 미비함이 있었다. 군산회관의 냉난방 시설은 층별, 실별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 2층 로비와 너른홀의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었다. 2층 로비는 면적에 비해 냉방 시설이 적는데다 전선이 유리로 되어 있어 냉방 효과가 거의 없었다. 북마켓이 위치한 너른홀 무대의 경우 급·배기 덕트와 가까운 가장자리 부분은 온도가 매우 낮아 참가사가 추위로 불편함을 겪었던 반면, 중앙부에는 냉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방문객이 물리는 시간에는 참가사와 방문객 모두 덥다는 반응을 보였다. 향후 군산북페어가 하절기 행사로 지속될 경우, 이러한 시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화물 운반

군산회관에는 이동약자 동선 보안을 위한 실내외 엘리베이터 2대와 리프트 2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승객용 설비이므로 책상, 의자, 전시 좌대 등 행사에 필요한 각종 집기 운반에는 구조와 용량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여러 층에 다량의 화물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어, 행사 준비부터 철수까지 과부하로 인한 엘리베이터 오작동이 자주 발생했다. 결국 하루에도 여러 차례 수리기사가 방문해야 했으며, 실제로 엘리베이터와 리프트를 이용해야 하는 휠체어 사용자나 유아, 고령 방문객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는 구조적인 보완이 어려운 설비이므로 향후 행사에는 설치 및 철수 기간을 여유 있게 두거나, 운반용 짐은 조립 또는 해체하여 무게와 부피를 줄이는 방안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행사 전후로 반드시 승강기 점검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주차

현재 군산 시민들의 가장 주요한 이동 수단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군산시의 기존 문화 행사와 축제 기획 시에 주차 대책은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군산회관은 차량 이용률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던 1980년대 개관한 시설로 주차장 규모 역시 군산시의 다른 관광지나 문화시설에 비해 작은 편이다. 게다가 북페어의 경우, 방문객은 물론 참가사의 차량도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주차 공간과 안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이번 북페어에서는 주차 대책으로 아래와 같이 인력과 안내 보강, 셔틀버스 도입을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인력과 안내 보강을 적용하였다.

- 1 주차 안내 인력으로는 주차장에 임시 인력 3인을 상시 배치하고, 모범운전자회, 교통관리과와의 협력을 통해 회관 인근 도로에서도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안내했다. 도보 1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인근 공영주차장 5곳을 파악하고 안내 자료를 설치했다. 행사 관계자와 참가사는 인근의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여러 차례 안내했다. 서점, 도서관을 통한 홍보, 보도자료, 프로그램 참여자 안내 문자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는 메시지도 여러 차례 발송했다.
- 2 셔틀버스 운행은 군산역, 시외버스터미널, 군산내항, 은파호수공원을 기점으로 군산회관을 오고 가는 왕복 노선을 검토했으나, 군산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이미 많은 수의 버스 노선이 지나는 곳으로 셔틀버스 운행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다행히 행사 기간 동안 주차 민원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접근성

소통협력센터 군산은 지속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연구와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으며, 군산회관의 리모델링 역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평과 수직의 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층 높이의 중앙 계단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던 기존 건물의 계단 아래로 터널을 뚫어 지면과 동일한 레벨의 길을 내는 '수평의 빼기'와, 건물 내부와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수직의 빼기'를 통해 이동 건물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군산북페어 2024'에서는 이동 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계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이동 약자 동선을 마련하고, 주차장에서부터 관련 안내 정보를 반복적으로 부착했다. 엘리베이터 점검 등으로 기존 이동 약자 동선이 사용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 관계자 동선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준비했다. 또한, 이 동선의 관리와 관련 문의에 응대하는 전담 인력 1인을 배치하여 여러 돌발 상황과 지원 요청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동 약자 주요 동선
'주차장 - 휠체어 리프트 - 선큰 로비 진입 - 내부 엘리베이터'의 동선 이용
- 이동 약자 동선 대안(휠체어 리프트 또는 내부 엘리베이터의 고장 시)
 1. 주차장에서 차량 진입로를 이용하여 어린이 공원 방면으로 이동 후 사무실동 자동문을 통하여 너른홀로 바로 진입하는 동선
 2. 주차장에서 건물 진입용 경사로를 이용하여 어린이 공원 방면으로 이동 - 건물 남측 뒤편 너른홀 무대 출입구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동선

다만 이번 행사의 접근성 강화 노력이 휠체어와 유아차 등 이동 보조기기 사용자 또는 노약자 등의 이동 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성 개선에만 그쳤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음성 안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혹은 문자 통역 제공 등 행사 전반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향후 행사 준비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북페어 기간 동안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나 시설 공사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용 규정도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향후 행사에서 공간 사용 규정을 검토할 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 세부 규정을 개발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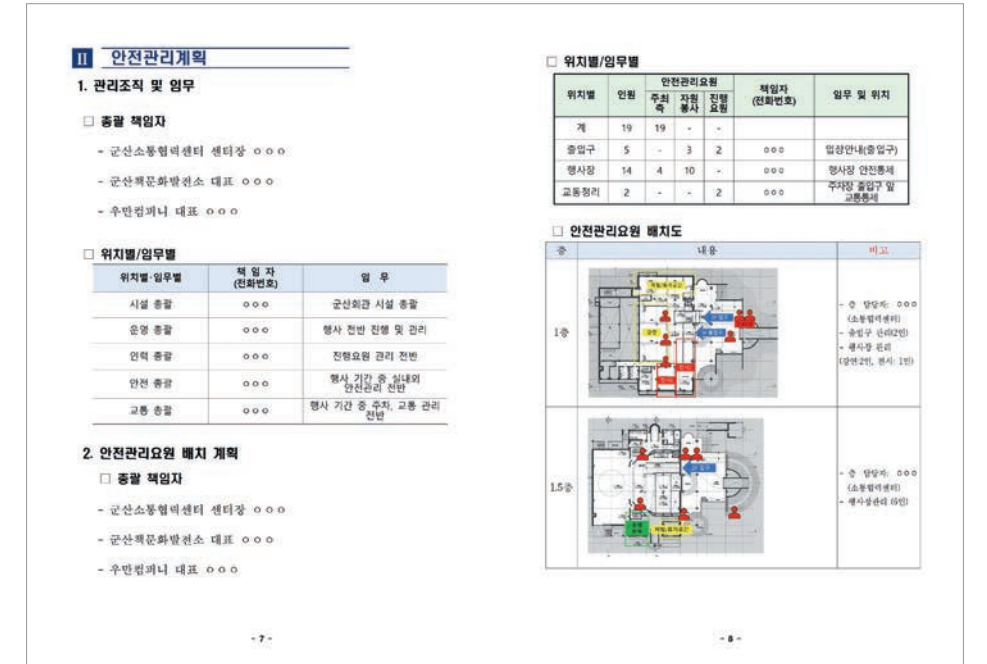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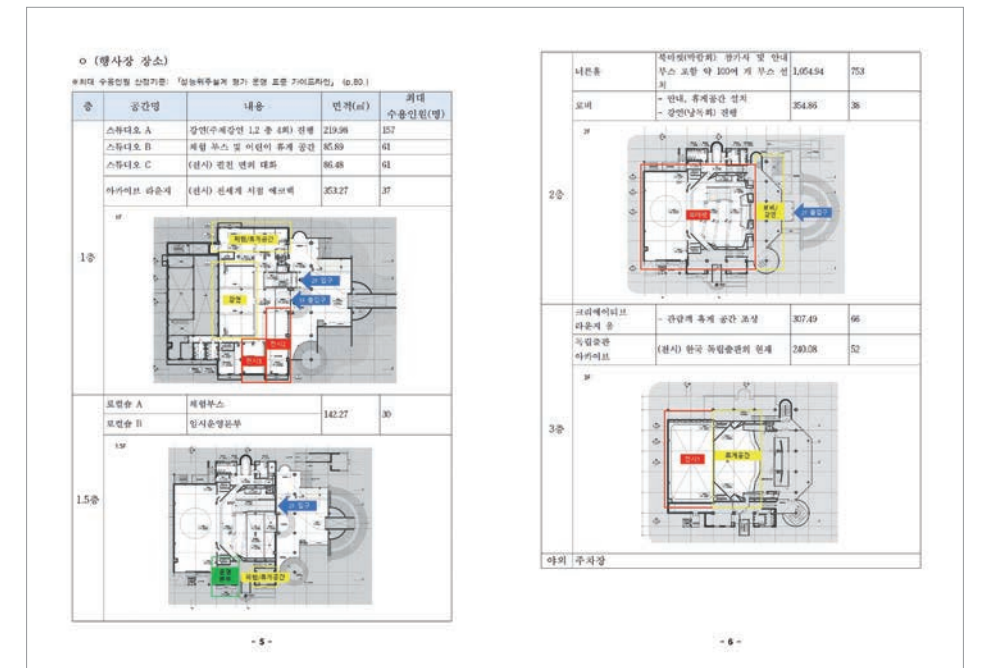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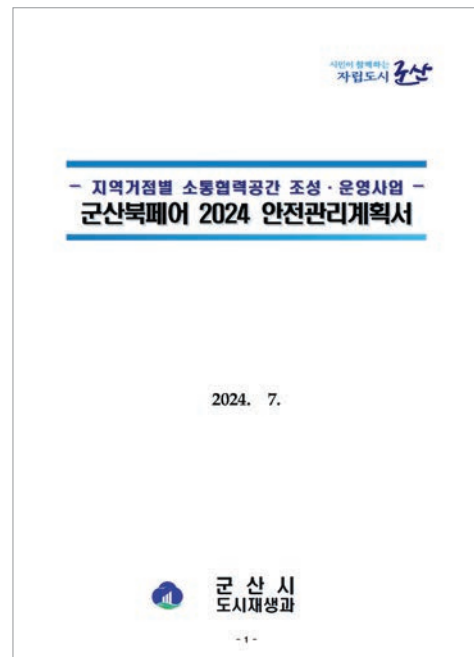
북페어 양일 동안 현장 운영에 투입된 총 인원은 약 50명이었다. 현장 운영을 맡은 우만컴퍼니에서 23명의 임시 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안전 관리, 관객 문의 응대, 전시 키입, 프로그램 운영, 주차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소화했다. 군산책문화발전소 회원 서점지기들은 북마켓 참가사 응대와 현장 참여 이벤트, 프로그램 지원과 연계 도서 판매를 진행했다. 소통협력센터 군산은 시설, 인력 관리, 운영 업무 전반을,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맡았다. 양일 간 군산시 도시재생과와 도서관에서도 각각 3-4인의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전체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다.

안전 관리

이들간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인 만큼, 철저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행사 전 관내 경찰서와 소방서의 안전 점검을 완료했으며, 행사 중에는 공간 내 임시 의무실을 운영하고 전문 응급구조사 1인을 상주시켰다.

안전 관리를 위해 각 층에 안전요원 3-4인과 관리 인원 1인을 배치했으며, 관리 인원은 센터 직원과 1:1로 매칭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임시 인력은 사전 교육을 통해 대피 동선과 보고 체계를 숙지하도록 했으며, 본 행사 기간 동안에는 스태프 전용 단체 채팅방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더운 날씨로 인해 운영 인력, 특히 하루 종일 야외에서 근무하는 주차 관리 요원이 온열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이를 대비해 얼음물, 쿨링팩, 휴대용 선풍기를 제공했으며, 3인 1조로 배치하여 근무 시간 동안 수시로 교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 계획서

F&B

식음 공간과 설비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페어를 개최함에 따라, 별도의 F&B 부스를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 제공은 고려하지 않았다. 대신 방문객 편의를 위해 총별도 정수기를 임시 설치했으며, 참가사에게는 후원을 통해 부스당 하루에 생수 2병씩을 제공했다. 식수 제공은 비용 대비 이용도와 만족도가 높은 편의 지원으로, 향후 행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병 생수는 후원을 통해 공식 생수로 제공하는 다른 축제 사례를 참고할 만 하다.

IV.군산북페어 2024 — 현장

‘군산북페어 2024’의 북마켓에는 총 100개 부스가 펼쳐졌다. 출판사, 서점, 작가 외에도 디자이너, 개인 제작자, 헌책방, 영화제, 학교 등 기존 북페어에서는 쉽게 만나볼 수 없었던 전국 각지의 참가사 110개가 참여했으며, 일본과 대만의 5개 초청팀도 함께 자리했다.

참가사명	분류	도시
마이페이보릿	출판사+개인 제작자	서울
전주국제영화제	영화제	전주
플레이아카이브	기타	파주
사과와 서울	개인 제작자	서울
노네임프레스	출판사+디자인스튜디오	대전
진짜공간	웹진	서울
SoA×이민규	건축사무소+디자이너	서울
장명날	개인 제작자	고양
포포타무/pokotame	서점+컬렉티브	도쿄(일본)/서울
타바코박스	개인 제작자	대구
닌켄페이퍼프레스	출판사	전주
도깨비사	개인 제작자	도쿄(일본)
갈매기 자매	개인 제작자	서울
스튜디오 손손	디자이너	서울
까만개	출판사	서울
유연성클럽	출판사	서울
팀쓰리테일즈	개인 제작자	서울
좀비출판+이미지걸스	출판사+디자이너	안양
스페인책방	서점	서울
워크룸 프레스	출판사	서울
낮은리복스	서점	대구
더복소사이어티/미디어버스	서점+출판사	서울
이후복스	출판사	서울
1도씨와 온도들	출판사	서울
리시울/플레이타임	출판사	고양
고스트복스	서점	대구

쪽프레스	출판사	서울
키오스크키오스크	서점+디자이너	서울
땡스복스	서점	서울
빛소굴	출판사	고양
안온복스	출판사	서울
일구팔사복스	출판사	익산
유유	출판사	파주
사적인서점	서점	파주
이응	출판사	서울
프론트도어	출판사+디자인스튜디오	서울
마티	출판사	서울
조현진	개인 제작자	서울
가망서사	출판사	서울
열매하나	출판사	순천
뚝과뚝	출판사	서울
또 프레스 by 퉁괴는여자들	출판사+전시기획사	서울
출판공동체 편양	출판 컬렉티브	서울
레프티프레스	개인 제작자	서울
책덕	출판사	서울
물결서사	서점	전주
군산평화박물관 / 눈맞춤작가단 / 수라와 갯지렁이들	기타	군산
탐조책방	서점	수원
금호강 디디다×도시공원 기록 활동×팔현습지를 지키는 예술행동	창작 컬렉티브	대구
오큐파이 더 시티	출판사	서울
굴프레스	출판사	서울
삐약삐약복스	출판사	군산
비현실	개인 제작자	서울
유물시선	출판사	군포
호미와 낮	출판사	광주(경기)
위고	출판사	파주
몸 복습	서점	타이페이(타이완)
아트큐피	서점+도서관	타이중(타이완)
B&B	서점	도쿄(일본)
인섹츠 퍼블리싱	출판사	오사카(일본)
호호호좌	서점	교토(일본)
인공위성+82	출판사	의왕
힐데와소피×이나영책방	출판사	서울
구픽	출판사	서울

기획:3	출판사+개인 제작자+디자이너	서울
볼도저프레스	출판사	서울
구불	출판사	서울
조용한홍분색	서점	군산
에이커북스토어	서점	전주
공출판사	출판사	당진
출판사 방	출판사	서울
하우위아	개인 제작자	서울
섬드레	출판사	제주
앤의서재	출판사	서울
움직씨 출판사	출판사	고양
내일을여는책	출판사	장수
포도밭출판사	출판사	옥천
어떤책+에이치비프레스	출판사	서울
책방 똑똑	서점	전주
책방 소리소문	서점	제주
복셀러	서점	대구
누크	개인 제작자	군산
화원	출판사	서울
광합단	창작 컬렉티브	용인
수목요일	개인 제작자	서울
피스 카인드 홀	서점	부산
심리서점 쓰담	서점	군산
리루서점/군산어린이서점 책봄/종이글짜기	서점	군산
한길문고/책나물/봄날의산책/종이와 연필사	서점+출판사	군산
사월의눈	출판사	대구
더폴락	서점+출판사	대구
남해의봄날	서점+출판사	통영
책방앗간	출판사+서점	서천
군산초단편문학상	문학상	군산
파주타이포그래피배곳	학교	파주
AABB OS	도서관+서점	서울
후진	창작 컬렉티브	서울
글라프레스	출판사	서울
몽타주 프레스	출판사	서울
프로파간다	출판사	군산

또한, 총 10개의 프로그램이 양일 간 열렸으며 3개의 전시, 5개의 주제 토크 및 대담, 2개의 이벤트(낭독회, 워크숍)가 열린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군산북페어 2024 — 현장

8월 23일 D-8

13:00 - 16:00 북마켓과 각종 프로그램을 위한 테이블, 집기 설치
17:00 종합 안내 리플렛 도착. 군산 전역에 배포 시작

8월 26일 D-5

10:00 참가사 택배 도착 시작



8월 29일 D-2

10:00 동선 안내 사이니지 부착
13:00 프로그램 좌석, 집기 설치
15:00 북마켓 좌석, 테이블보, 명패 설치

8월 30일 D-1

10:00 최종 점검 라운딩, 점검 회의, 안내 경찰서 및 소방서 실사
15:00 북마켓 참가사 사전 설치 시작



8월 31일 D-Day 1

군산북페어 2024 첫째 날

- 7:30 오픈런을 기다리는 첫 번째 방문자 등장
- 8:30 담당 직원 출근 완료
도시재생과와 교통관리과에서도 아침 일찍부터 주차와 현장 정비 인력 지원
- 9:30 모든 인원 출근 완료. 설치, 청소, 막바지 정비로 분주한 가운데 오픈을 기다리는 대기줄이 3층 원형계단까지 길게 늘어남
- 11:00 북페어 본격 오픈
- 12:30 황석영 작가의 강연을 기다리는 현장 대기 인원으로 1층에도 구불구불한 줄이 생기기 시작
- 13:45 식지 않는 열기로 1시간 정도 입장 통제, 회관 모든 층에 방문객으로 가득함
- 14:00 진 바인딩 워크숍 시작 - 시끌시끌 북적북적한 회관에서 유일하게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
- 15:00 로비에서 시작된 낭독회 - 오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시인들의 낭송을 듣는 사람들 목격
- 16:00 '동네서점의 시대'를 연 서점지기들의 토크로 첫째 날의 모든 프로그램 마무리
- 17:30 서적 매진한 부스가 나오기 시작 - 둘째 날 판매할 책을 공수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는 후일담
- 19:00 첫째 날, 행사 종료
- 20:00 네트워킹 파티 '책은 친구를 만든다' 시작
- 22:00 네트워킹 파티 마무리



9월 1일 D-Day 2

군산북페어 2024 둘째 날

- 8:30 운영 인력 출근 완료
오늘도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주차장과 진입로를 지켜주는 담당자들 덕분에 회관 앞은 평온
- 9:00 둘째 날, 오픈 준비 시작
- 10:00 로비로 모여드는 방문자들과 또 다시 길게 늘어선 오픈 대기줄
둘째 날의 오픈런 쿠폰은 10시 43분에 소진 완료
- 10:30 주말 아침인데도 도쿄 B&B 주인 우치누마 신타로의 강연을 들으려는 사람들로 벌써 가득 찬 1층 - 예상을 뛰어넘는 현장 참여 인원엔 한참동안 추가 좌석 마련
- 11:00 DJ Yesyes의 라이브 디제잉과 함께 둘째 날 시작
- 13:30 박삼재, 서한나, 조예은 작가와 이다혜 기자가 탐구하는 '우리 시대 책의 의미?' 주제 토크 시작 - 폐허가 되었던 회관이 다시 살아나 사람들로 가득한 풍경이 우리 시대를 은유하는 것 같다는 군산 출신 조예은 작가의 소감으로 주제 토크 마무리
- 14:00 북마켓 곳곳에서는 저자들의 깜짝 사인회 진행 중
- 15:00 옹기종기 모여 앉은 사람들로 가득 찬 전시장에서 '펼친 면의 대화' 전시 연계 토크 시작
- 18:00 둘째 날, 종료

군산북페어

GUNSAN BOOK FAIR

BOOKS FOR SALE SAIL FOR BOOKS BOOKS FOR SALE SAIL FOR BOOKS







가방은 Bags are Beautiful! 아름답다!



가방은 아름답다! — 세계의 서점 토트백 컬렉션

유명하거나 무명하거나, 역사가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기존과 경계 없이 수집한 전 세계 서점의 토트백 200여 점을 전열-구상한 전시입니다. 서점들은 자신의 이름 혹은 신조나 슬로건을 토트백에 프린트함으로써 이곳에 서점이 존재한다는 것, 어떤 아이디어로 공간이 작동되는지 말하려 합니다. 따라서 서점별 토트백을 모아 놓은 이 쇼케이스는 세계 서점들의 다종다기한 아이덴티티의 전시장이자 다름없는 셈이죠.

Bags are Beautiful! — Tote Bag Collection from Bookstores of the World

이름과 슬로건 같은 언어 요소 외에 드로잉, 타이포그래피, 색조, 레이아웃 등이 또한 서점의 철학과 개성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이 방방곡곡 서점들이 세상을 향해 취하는 제스처라면 우리가 서점을 사랑하는 한, 그 분신이라 할 토트백을 미답게 여기지 않을 도리가 없지요. 여기 서점의 인장이 새겨진 소박한 가방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조금 바꿀지 모르는 책이 담긴 가방은 아름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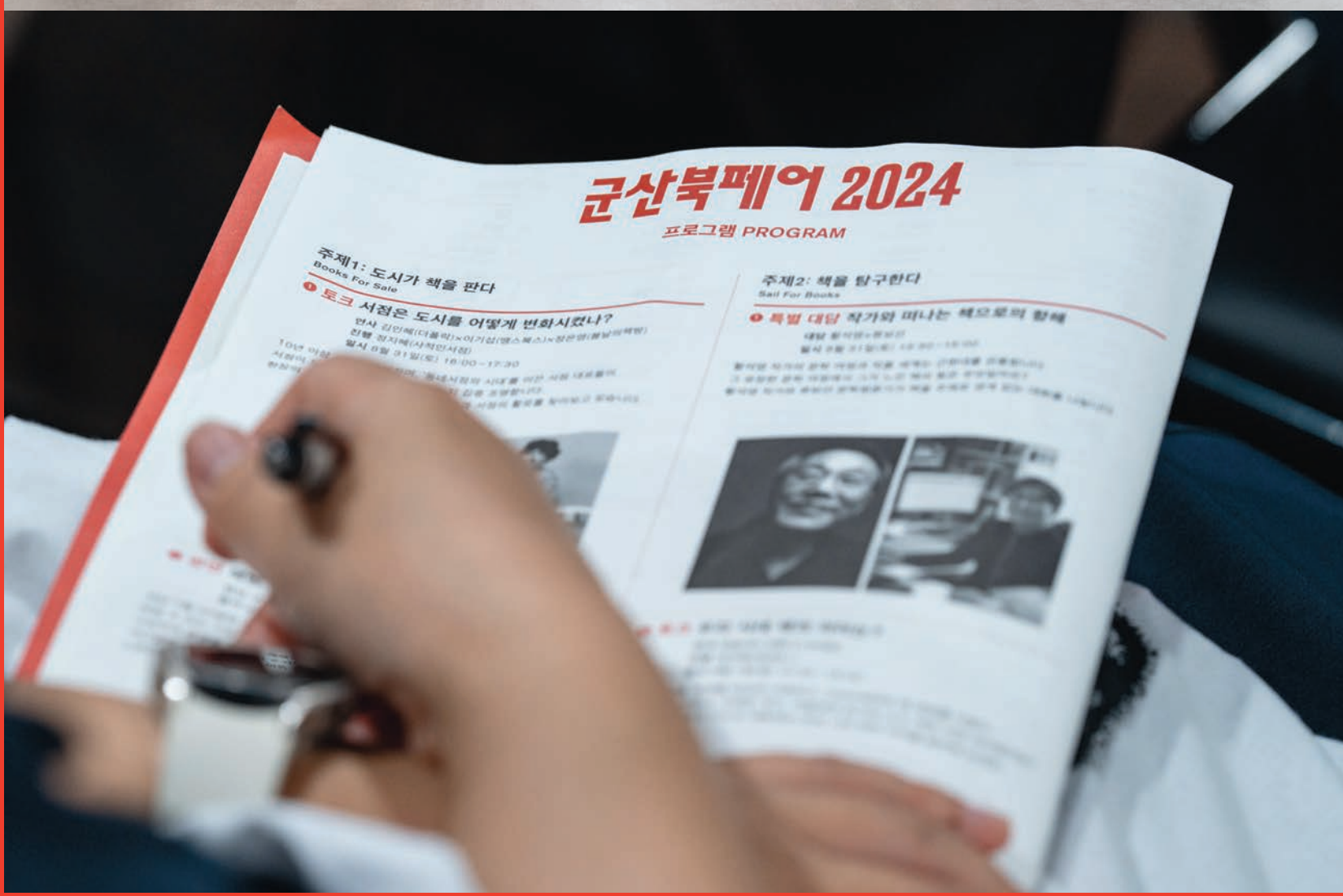
열람실 — 2000년 이후 독립출판 아카이브

거리 문화에 기반한 유스 페이퍼가 발흥하던 2000년 전후부터 '개인 창작자'라 불리는 독립출판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오늘날까지 한국의 독립-예술출판 분야에서 나타났던 주요 인쇄물들을 예비적 아카이브 형태로 구성·공개한다. 잡지, 진(zine), 동인지, 아티스트북, 카탈로그 등 형식은 극히 다양하지만, 관습 출판의 반대편에서 나름의 형식과 내용으로 맞서 보고자 했던 시도로 조명할 가치가 있다.

2000년대 중반 독립출판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후 20여 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취향'으로 환원되던 사적 출판이 분명한 미학적 태도와 목표를 장전한 사회적 출판으로 선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신(scene)의 변모를 반영하는 이 열람실이 한국 독립출판의 원주소는 물론 독립, 예술, 셀프 퍼블리싱의 미래를 상상하거나 새로운 출판물을 도모하는 데 한줄기 영감이 될길 기대한다.

READING ROOM — Independent Publishing Archives Since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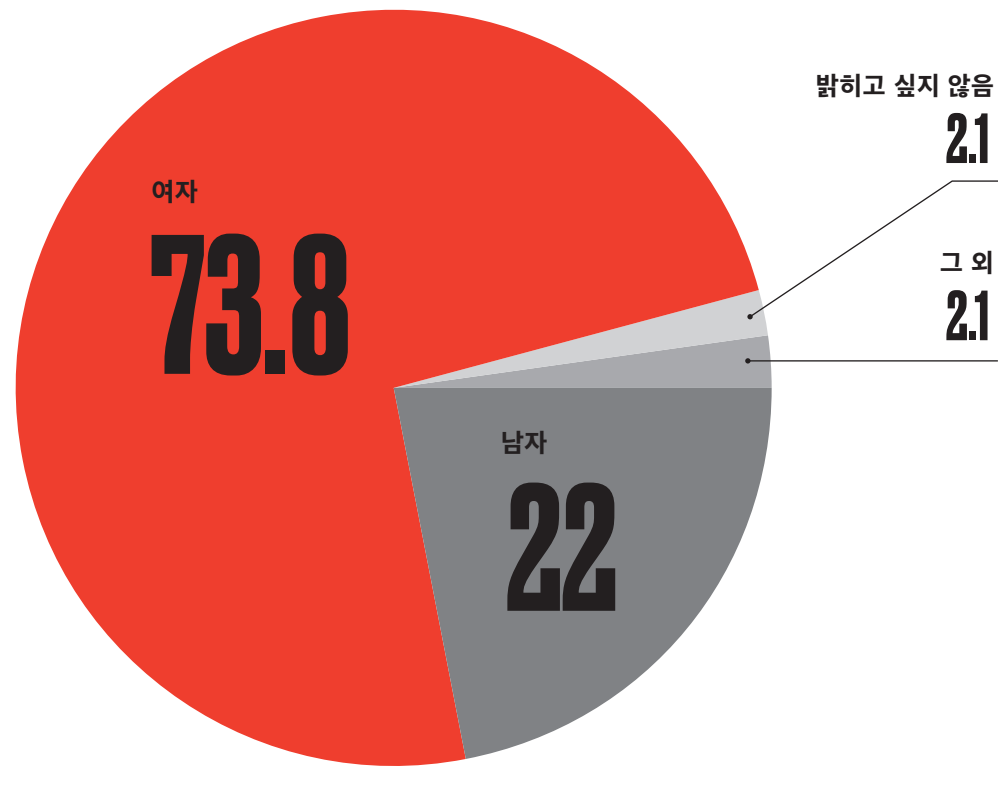


V.군산북페어 2024 — 그 후

1. 만족도 조사

'군산북페어 2024'는 이틀 동안 행사 방문자의 분포와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했으며, 입퇴장 동선에 만족도 조사 QR 코드를 배치해 최대한 많은 참여를 유도했다. 참여 독려 차원으로 협찬 물품, 센터 출간물, 북페어 포스터 등을 조사 참가자 리워드도 활용했다.

귀하의 성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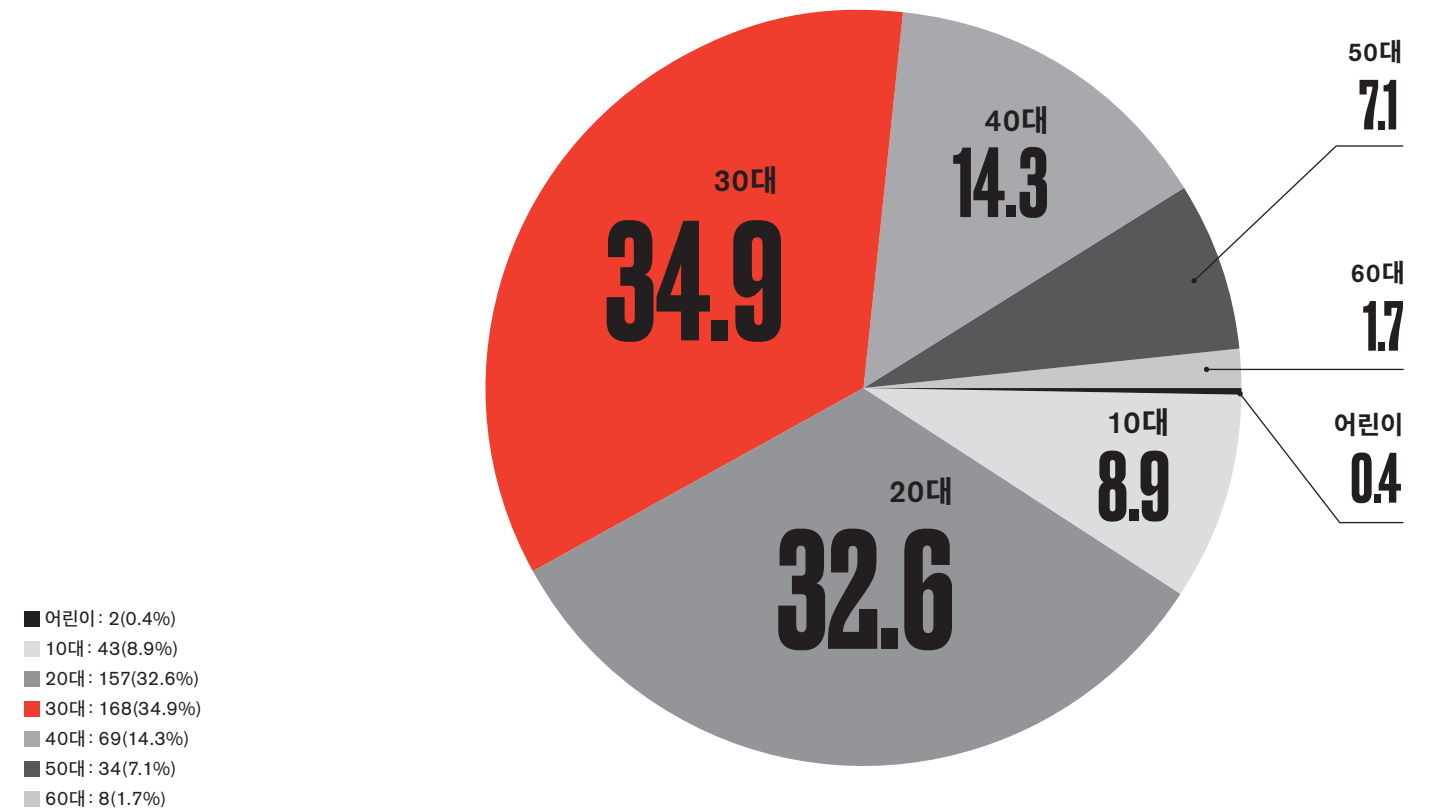


- 여
- 남
- 그 외
- 밝히고 싶지 않음

다른 북페어나 출판계 행사와 마찬가지로 여성 참가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만족도 조사에는 남자와 여자로 이분화된 젠더 외의 정체성 혹은 밝히고 싶지 않은 의사를 함께 표현할 수 있는 선지를 두었고, 이를 선택한 응답자가 있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 하다.

방문자 만족도 조사 일부 질문 및 결과(응답자: 48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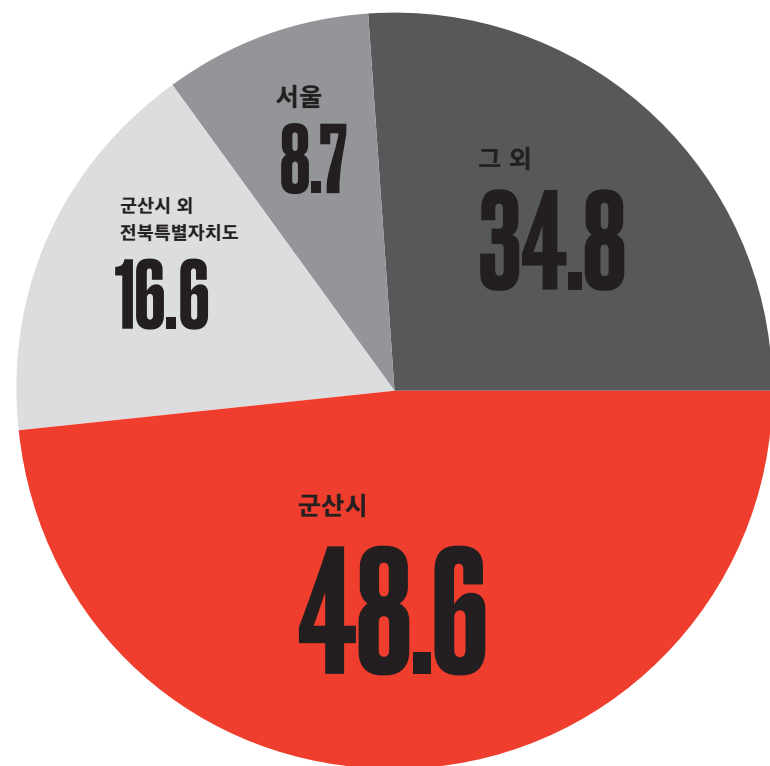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 어린이: 2(0.4%)
- 10대: 43(8.9%)
- 20대: 157(32.6%)
- 30대: 168(34.9%)
- 40대: 69(14.3%)
- 50대: 34(7.1%)
- 60대: 8(1.7%)

'군산북페어 2024' 방문자의 연령대 통계에서는 전통적인 북페어 소비자로 알려진 2030 방문자와 다른 연령대의 방문자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지역 행사가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나오는 곳'이라는 특성은 서울 및 수도권 북페어와는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 고유성을 잘 보존하는 것이 향후 행사 준비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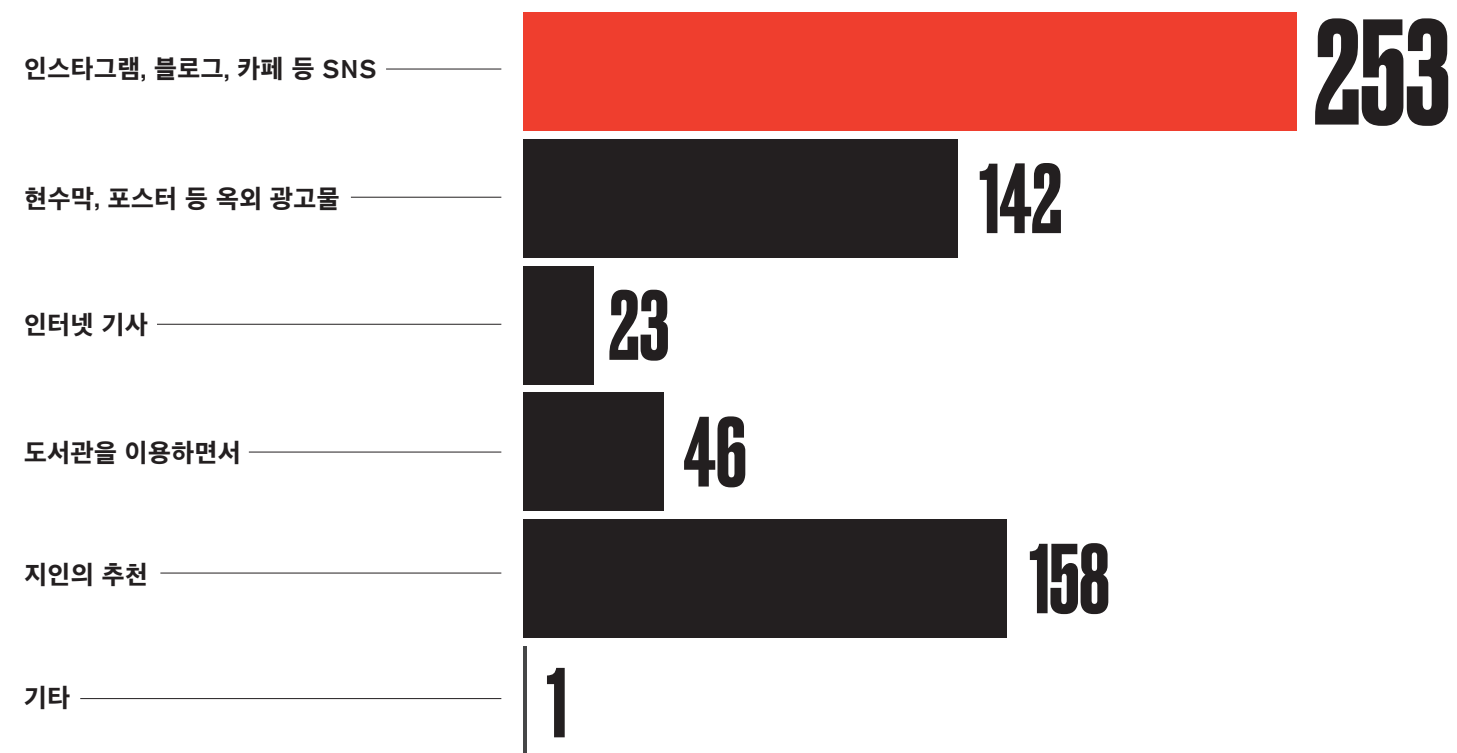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 군산시: 234(48.6%)
 ■ 군산시 외 전북특별자치도: 80(16.6%)
 ■ 서울: 42(8.7%)
 ■ 그 외: 167(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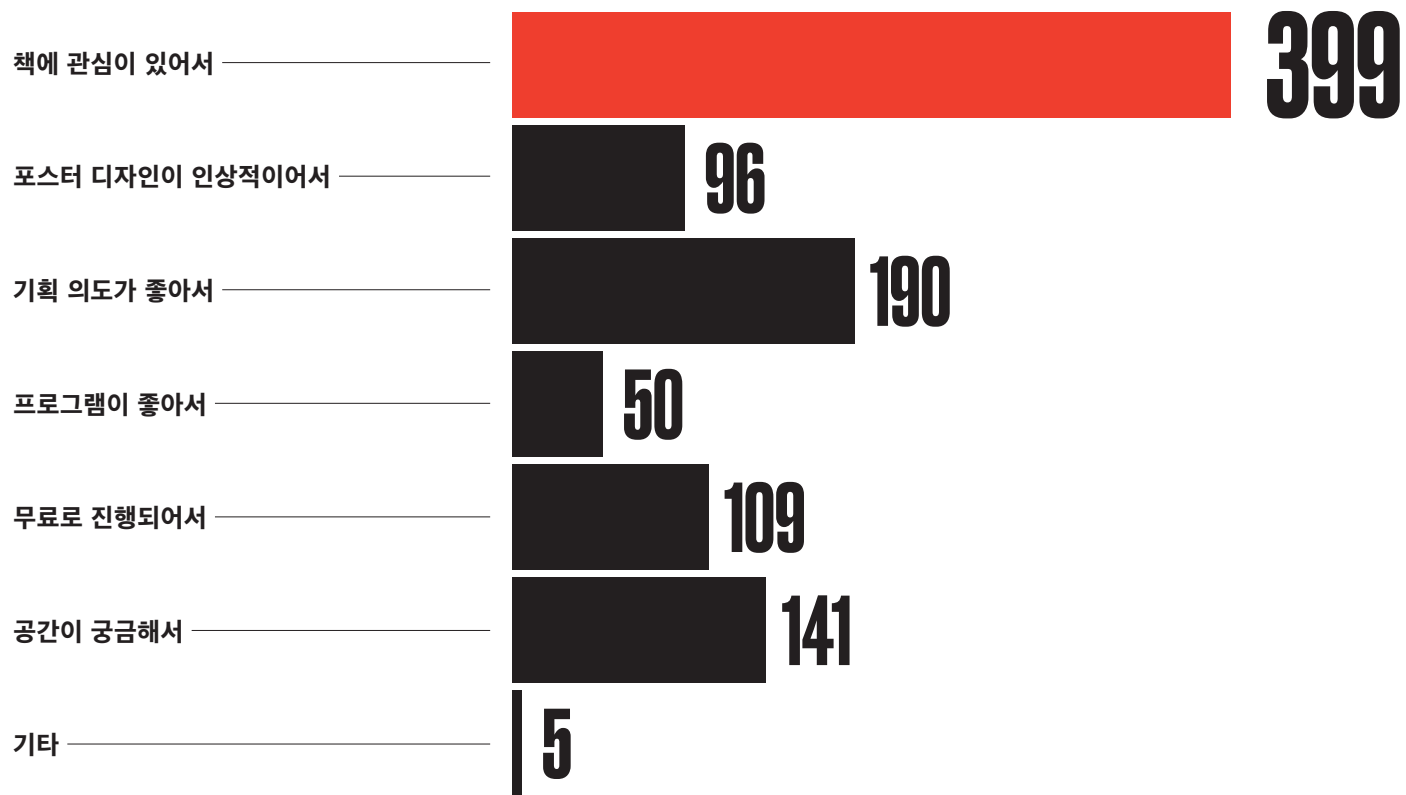
방문자의 거주 지역은 군산시가 48.6%로 가장 높았다. 군산과 인근 지역을 합해 약 65%의 방문자가 전북권역 거주자였다. 기타 지역 방문자 중에서는 서울 거주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 세종, 대전 권역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경기, 인천, 대구, 강원,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 각지의 방문자들이 이번 북페어를 방문하여, '전국적인 로컬 북페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

'군산북페어 2024'에 대해 어떻게 아시게 되었나요?



'군산북페어 2024'를 접한 경로는 온라인, 지인의 추천, 옥외 광고, 도서관 순으로 많았다. 기타 응답에서는 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길문고 추천", "서점(마리서사)에 붙은 포스터를 보고", "조용한 흥분색 방문으로", "군산 북카페 들렀다가", "전주책매 프로파간다 부스", "군산 책방에서 행사 안내 문자" 등 군산 관내 여러 서점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 동아리나 공문, 타지역 북페어에서 소식을 접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군산북페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군산북페어 2024' 방문자들의 관심은 단연 '책'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양질의 책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참가사 유치, 그리고 책을 주제로 한 수준 높은 콘텐츠 기획이 향후 북페어의 성공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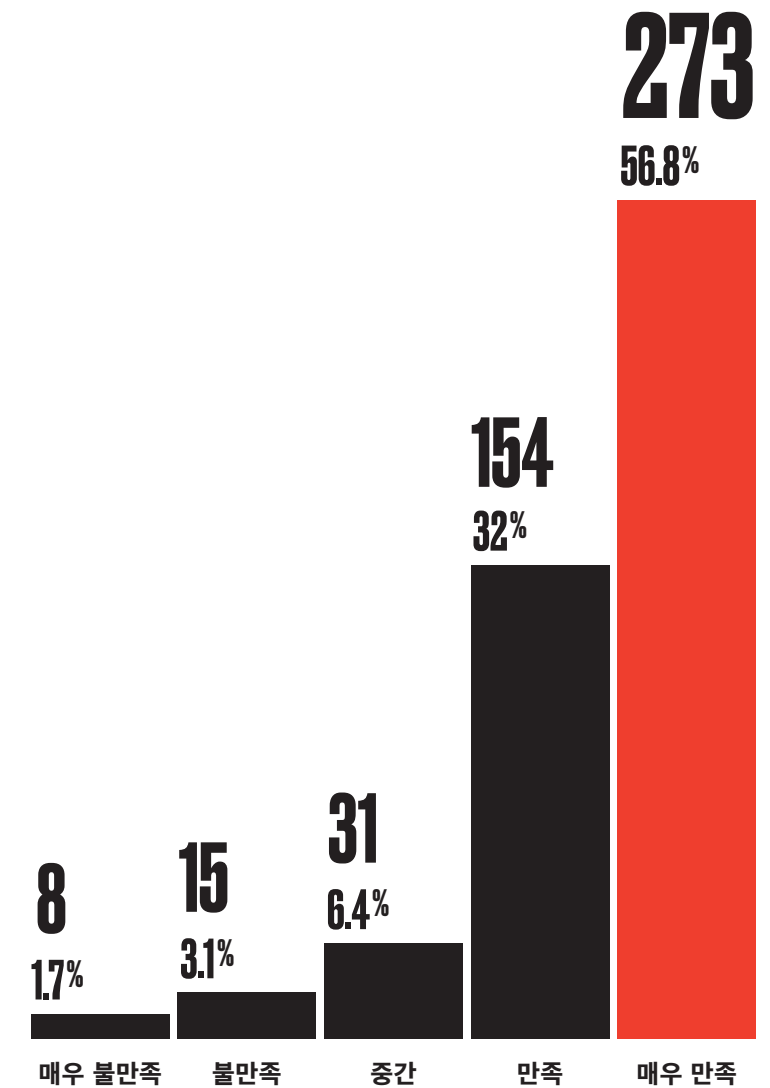
군산시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자 오랜 시간 유희공간으로 방치되었던 옛 군산시민문화회관의 리모델링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형 행사였던 만큼, 방문자 유치에는 공간에 대한 호기심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의견으로는 지역에서 이런 행사가 열리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이 있었다는 응답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이번 행사가 로컬 문화 행사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했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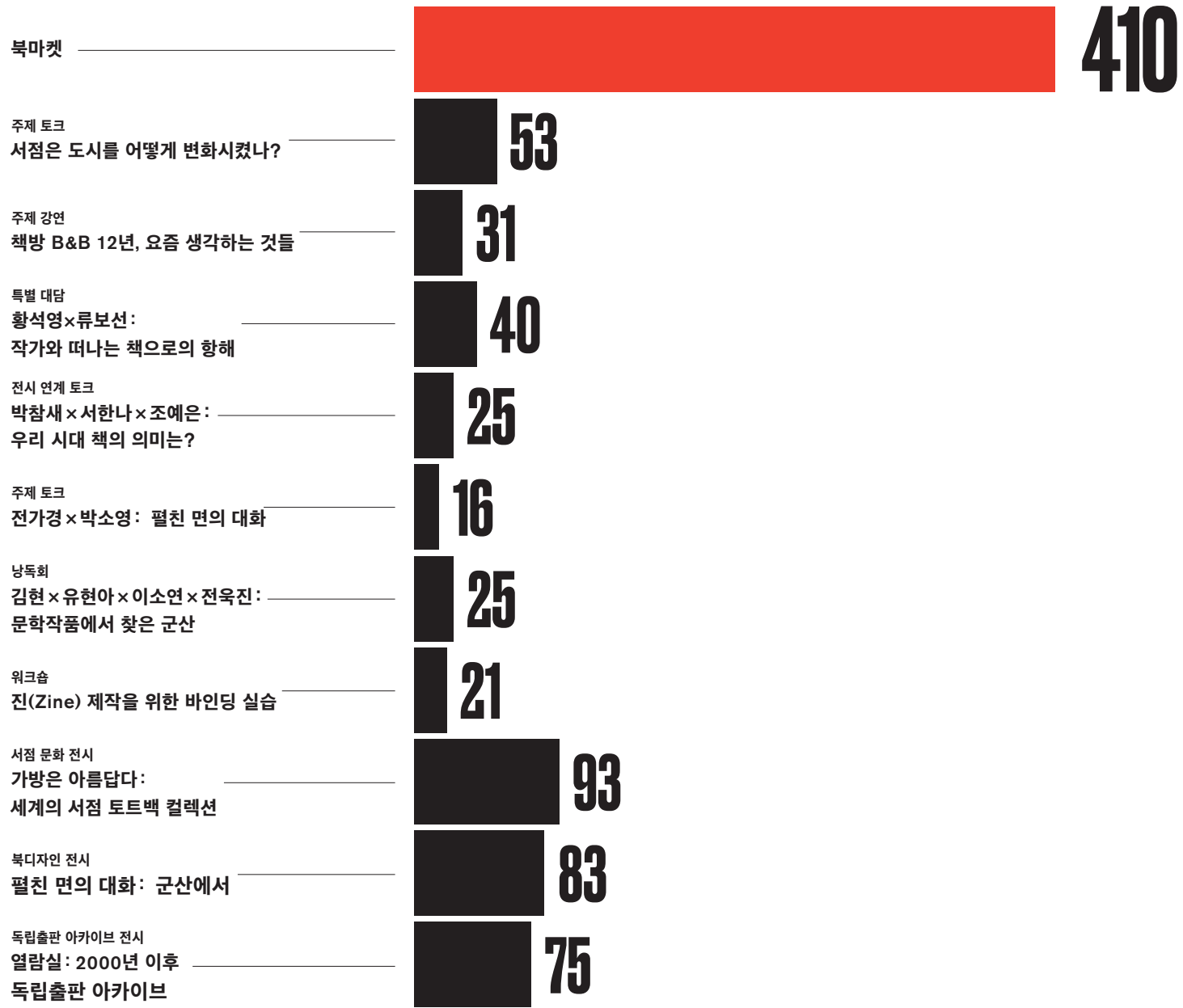
포스터 디자인과 프로그램 라인업에 대한 선호, 그리고 입장료가 없었다는 점은 상호 관련성이 높은 응답으로 볼 수 있다.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안정적인 재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무료 행사에 대한 선호가 큰 현실 속에서 이 두 가지 요구는 상충되는 모순을 드러낸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은 향후 행사 준비의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군산북페어 2024'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군산북페어 2024' 방문자 만족도는 '높음'과 '매우 높음'을 합쳐 88.8%로,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어진 주관식 문항에서는 만족스러운 점으로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었던 기회'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불만족 항목에서는 '공간이 좁아 관람이 불편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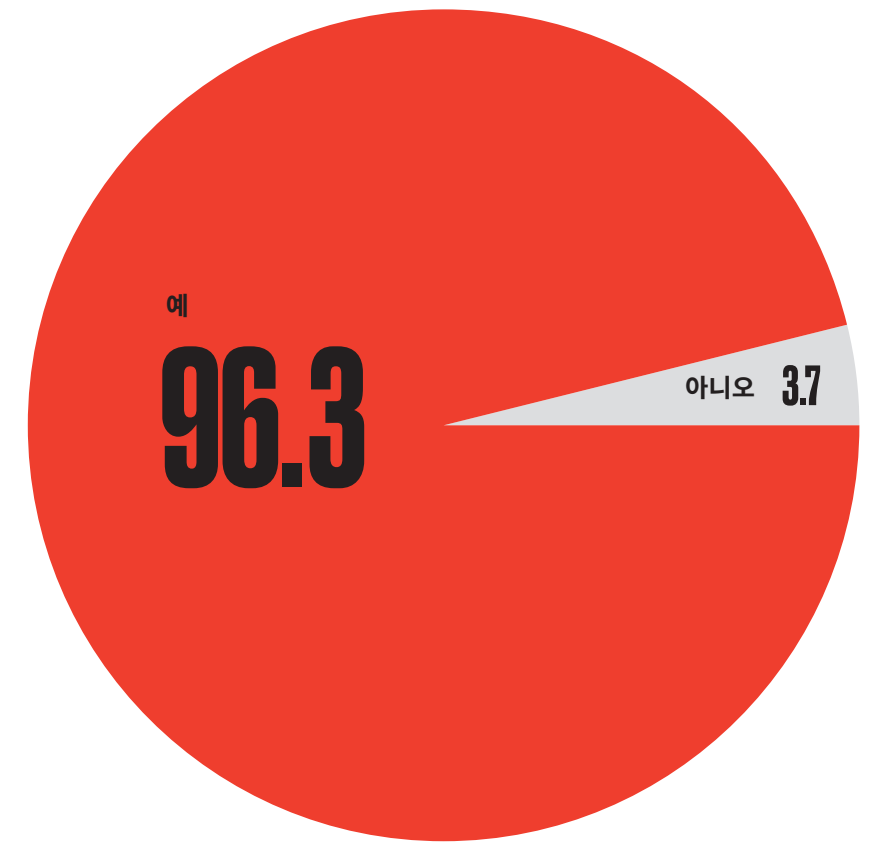
참여한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군산북페어 2024'에 방문하게 된 계기나 북페어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을 물었던 이전 문항들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북페어 전체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 역시 '북마켓'이었다. 결국 북페어 방문자들은 다양하고 이색적인 책을 만나러 행사에 오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해주는 설문 결과이다.

3개의 전시 모두 고르게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토크, 대담, 워크숍을 가장 좋았던 점으로 선택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프로그램들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내년 군산북페어가 열린다면 방문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 예: 96.3%
■ 아니오: 3.7%

위와 같이 '군산북페어 2024' 종료 후, 참가사 만족도 조사도 진행했다. 참가사 만족도 조사에서는 행사 전반에 대한 만족도 설문과 함께 매출 현황도 함께 파악했다. 참가사 설문은 종이 설문지에 주관식으로 적어 내는 방식을 택했으며, 참여와 응답은 참가사의 자율에 맡겼다.

참가사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좋은 매출 실적을 거두었다는 점과 지역에서의 북페어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운 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점은 관람객 밀집으로 인한 통행의 어려움과 고르지 못한 냉방으로 인해 일부 참가사들이 매우 춥거나 매우 더운 상황에 지속적으로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2. 후기

‘군산북페어 2024’ 종료 후,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신문 칼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방문자와 참가사의 후기를 접할 수 있었다.

방문자 후기에는 북페어 덕분에 군산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군산이 책방의 도시임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반응, 어린이와 함께 온 방문자의 경험, 나이가 지긋한 독자로서 오랫동안 애정해온 황석영 작가를 만난 기쁨, 군산회관의 재탄생에 대한 감회 등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 서점이나 일상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책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은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참가사 후기에서는 북페어 관람객 연령대와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엄마와 딸,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유아차를 밀고 온 젊은 부부 등 다양한 관객들이 거리낌 없이 책이 펼쳐진 공간을 자유롭게 누비는 모습이 서울의 대형 행사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광경이었다는 것이다. 이성당과 군산 게스트하우스처럼, 군산의 여러 곳에서 보여준 환대가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었다는 언급도 있었다. 관객 구성의 다양성, 지역 특유의 정다움, 그리고 활발한 인적 교류는 지역 행사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이자 잘할 수 있는 지점임을 시사한다.

3. 만든 이들의 회고

‘군산북페어 2024’ 성료 후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면, 인터뷰, 포럼, 토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리에서 군산북페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문의가 쇄도한다. 이에 북페어를 준비한 주체들은 군산 안팎으로 이와 같은 요청을 소화하며 북페어를 만들었던 마음과 과정에서의 배움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북페어에 대한 상상을 펼쳐보고 있다. 이 책 또한 그러한 활동의 일부이다.

다양한 매체와 자리를 통해 ‘군산북페어 2024’를 함께 만든 사람들이 회고한 ‘군산북페어 2024’의 효과와 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다.

효과

- 국내외 출판사, 서점, 창작자 100여 팀 참여와 매출을 통한 군산북페어 지속 가능성의 결정적 지표 구축
- 군산 고유 책 문화 형성 및 시민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 및 책 문화 진흥과 지역 문화 활성화
- 군산 안팎의 참가자 및 관람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다양한 국내외 출판 콘텐츠 소개를 통한 지역 내외 문화 교류 촉진 및 지역의 문화 상징성 제고

향후 개선방향

- 기획, 운영, 용역 수행 인력과 인건비 예산 확보
- 지속 가능한 군산북페어가 되기 위한 안정적 예산 마련책과 운영 조직 정비
- 관람객 밀집으로 인한 통행의 어려움을 줄이는 부스 간격 조정 필요
- 군산회관 너른홀 에어컨 아래쪽 부스의 추위, 물 떨어짐 문제 개선
- 군산북페어 도서 구매 쿠폰 배부 방식 정교화

연표

2023

- 1월 소통협력센터 군산 개소
- 6월 군산의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을 위한 군산 지역 서점 방문 및 교류 시작
- 8월 군산 지역 서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로컬 브랜딩 시범사업 <열람실 회의실> 기획 (기대 효과: 소통협력센터와 서점, 군산의 책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의 연대감 형성 및 북페어 준비를 위한 실무 지식 향상)
- 9월 군산책문화발전소 설립(9.15.)
- 10월 <열람실 회의실> 개최 (10.17.-31.)-“군산”과 ‘책’, ‘문화’라는 키워드를 화두로 군산 책 문화의 비전을 상상하고, 고민” (행사 브로셔 발체)
- 11월 <언리미티드 에디션>(서울) 답사(11.03.)
- 12월 <군산 문학의 날> 개최-문학 관련 창작 커뮤니티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2024

- 2월 군산북페어 기획 방향 세부화 및 협력을 위한 소통협력센터 군산-군산 지역서점 1:1 미팅
- 3월 군산북페어 서점 간담회 개최/군산시립도서관-소통협력센터 군산 군산북페어 협력 추진 논의 및 확정
- 4월 군산북페어 메인 그래픽, 웹사이트 개발 시작/군산북페어 기획 및 운영 입찰 공고
- 5월 군산북페어 기획 및 운영 용역사 선정 (05.10.)/북마켓 참가사 모집/군산북페어 전시, 주요 행사 등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섭외/군산북페어 운영위원회 수립
- 6월 각종 실무 진행/북마켓 참가사 지원 마감 및 선정
- 7월 군산북페어 프로그램 확정, 각종 실무 진행 및 운영/안전 계획 수립/<전주책페> 답사
- 8월 ‘군산북페어 2024’ 개최
- 9월 ‘군산북페어 2024’ 성료

군산북페이 2024 보고서

‘군산북페이 2024’

기획·운영

군산책문화발전소
강주혜(심리서점 상담)
권세나(조용한 흥분색)
김광철(그래픽숍)
김미경(리투서점)
김우섭(한길문고)
문지영(한길문고)
박모니카(봄날의 산책)
박영근(양우당)
석예지(구 버틀러북스토어)
이다영(어린이서점 책봄)
이상모(에스트서점)
이은진(그림산책)
임현주(마리서사)
한상미(시간여행자의 책방)

주최·주관

소통협력센터 군산

성훈식

김성형

박지수

김은지

박세진

이하늬

최미래

군산시 도시재생과

최성봉

김영중

김대건

이서정

군산시 시립도서관관리과

이현주

김태은

고보경

양성희

채서진

현장 운영

우만컴퍼니(김나은)

현장 스태프

강위로

이슬기

백서희

김성준

정민중

김준하

송예림

김하영

김경선

고다비

박혜빈

고소영

김의찬

이은아

류정서

이정재

김나연

김아름

한지원

김은혜

임의현

김소희

최환석

미디어 파트너

GRAPHIC(프로파간다)

그래픽 디자인

프론트도어

웹사이트 개발 및 디자인

오렌지 슬라이스 타입

(오예슬, 장우석)

DJ

DJ Yesyes(박다함)

전시설치

이준혁

기술지원

임세일

육외홍보물

은성광고

통역

계하은

번역

박정민

박정임

박재용

교열

이은지

임현주

현장기록

임효진

공간모델링

서신욱

도움

국립군산대학교

김민희(책덕)

김예령

김예빈

김준하

김진아

도윤호

로렐 지우바

박세현

박하은

부은정

산르디

샘 리

세어 위살

스마리카 샤르마

승윤주

신덕호

신디김

신유진

신지혜

신진영

썬세 브루고스

용림/아델

우인선

우주언

이기섭(땡스박스)

이요한

이은송

이주형

이지선

이지수

일빙 라미레즈

임경용(더북소사이어티)

전도연

정승기

정은주

정재완(사월의눈)

조선빈

조현아

최미래

크리스 하마모토

피오니

후원

군산말랭이마을

빈브라더스

사계절출판사

아트박스

에스24

이성당

한국출판협동조합/

책광장모두

‘군산북페이 2024’ 보고서

발행처

소통협력센터 군산

기획 및 정리

박세진(소통협력센터 군산)

편집

김다은(다단조)

복디자인

프론트도어

본 발행물은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소통협력센터 군산과 다단조가 함께 합니다.

본 발행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www.connectgunsan.com

@commonzfield_gunsan

contact@sotong-gunsan.com

063-464-150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308 군산회관

(구 군산시민문화회관)

